후원회 소식

통권 211호 | 발행일 2009. 5. 20 | 발행인 김호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광주항쟁 정신계승! 공안탄압 분쇄! 이명박정권 퇴진

▲ 5월정신 계승해 반MB전선 결집을 다짐하다. (통일뉴스 사진제공)

· 목 · 차 ·

인사말씀 김호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모성용 • 4 / 회원취재 · 양삼봉회원 임미영 • 7 / 기행기 양희철 • 11 / 감옥에서 온 편지 · 장민호 외 • 14 / 성명서 • 21 / 기고 김동균 • 23 / 산행기 박윤경 • 26 / 제21차 정기총회 보고 • 28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31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3 / 재정 보고 • 4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오월의 하늘 아래 살아있는 양심과 조국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김호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양심수 후원회원과 차가운 감옥에 계시는 양심수 동지 여러분!

안부를 묻기도 어려운 엄혹한 현실이지만 엎드려 인사 올립니다.

퇴보하는 역사의 험난한 여정에서도 인간 양심의 소중함과 사상의 자유와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하여, 쉼없이 후원하고, 어깨걸이 해주시는 동지 여러분들께 신임 회장으로서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MB정권 등장 이후 생존권을 부르짖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활은 참상이라 할 정도로 더욱

심하게 짓밟히고 있으며, 나라경제는 신자유주의 그늘아래 일부 대기업과 소수 1%만을 대변하는 삽질경제로 인하여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온몸으로 투쟁하여 이루어냈던 남북의 6.15나 10.4회담도 저들의 눈에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찌 인간의 양심이며, 우리끼리의 민족 공조를 기반으로 한 조국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 말 어느 누구 하나 거론하지도 않고 나서기를 꺼릴 때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의 석방운동과 사회민주화 운동의 여정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지들에 대한 지원 및 석방에 뜻을 같이하는 이 땅의 열혈 동지들의 의지를 모아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성년이 된 양심수후원회입니다.

회원 여러분, 양심수 동지 여러분!

그 동안 회원으로, 운영위원으로, 부회장으로 후원회와 함께 했지만 막상 회장이라는 책무는 감히 언어도단이었습니다. 역량이 몹시 부족한 사람에게 회장이라는 자리가 부적합하지만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더욱 튼실해진 사무국 성원 및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에 기대어 감히 깜냥의 한계를 벗어나보려 합니다.

차후 후원회의 활동 방향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사무국 위주의 역량 강화와 회원들간 연대 강화, 양심수 및 장기수 선생님 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원 여러분들의 힘찬 뒷받침과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해오셨던 것처럼

더 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합니다만 오직 여러분들의 힘찬 동지애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낳고, 세파는 시대의 걸출한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엄혹하고 모진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나약하게 만들거나 분열시키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되돌아보면 더 어려운 시절도 많았고 지독한 고초를 겪으셨던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어쩌면 설익은 민주화의 단맛에 취해 조금 느슨해져 있었나 봅니다. 다시 동지들의 뜻을 모아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다.

촛불이 들불이 되고, 들불이 민중의 가슴에 활화산이 되어 마침내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가 이 땅에 훨훨 넘쳐날 때까지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인 세력과 당차게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1989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끌어 오신 권오헌회장님께 후원회 모든 성원과 이 땅의 양심수들의 뜨거운 가슴을 모아 큰절을 올립니다. 이후에도 회장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줄곧 양심수 후원회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넉넉한 품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강건하시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의 가슴에 시대의 사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핏빛 오월의 하늘아래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짐합니다.

시대의 양심을 딛고 역사의 양심으로 우뚝 서는 양심수후원회가 되기를 ….

그리하여 이 땅에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되고, 모든 양심수가 즉각 석방되는 그날이 오고, 통일 조국의 한마당에서 서로 어깨걸이하고 춤출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대망합니다.

2009년 5월

회원동지 여러분의 평안과 건투를 빕니다.

안희숙 선생님 팔순 신선옥 여사님 칠순잔치

모성용 |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고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기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기뻐서 수인사로 끝나지 않고 가슴가득 안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내게는 안희숙 선생님이 그런 분이다.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뵐 수 있음은 물론이요 후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처음 선생님을 뵈올 때를 기억해보면 언제인지 확실치도 않은 십 수 년 전이지만 특이한 목소리가 계속 신경이 쓰였었다. '전날 목을 많이 쓰셔서 목이 쉬셨나?'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그 목소리……. 나중에야 폐를 반 가까이 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목소리가 이해가 되었고 더욱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신년이나 추석 무렵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낙성대에서 가까워 꼭 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모님께도 결혼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이야기를 귀동냥해서 들을 기회가 생기고 소설 같기 만한 삶의 이야기에 가슴이 얼었다 녹았다 더워졌다 싸늘해지기를 수차례나 반복했다.

67년도에 나이도 열한 살 차이가 나는데 여섯 살 차이난다 속이고 (선생님은 당신이 속인 게 아니고 중매쟁이가 그리한 거라고 우기신다. 허나 내가 보기엔 최소한의 담합 내지는 묵인은 있으셨을 듯…….) 과거전력도 말하지 않은 선생님을 그저 선생님 첫인상이 좋아보이셔서 결혼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봉천동에 둥지를 틀고 정말 밥상도 없어서 사과궤짝에 밥그릇 두개, 수저 두 벌로 시작해 하나씩 살림을 늘려가며 오순도순 살아가던 중에 75년에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시게 되고 두 분의 결실인 외동딸 '삼화' 마저도 그로부터 7개월 뒤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고, 친정으로 부터는 이혼을 하라는 성화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출소 후 찾을 사람이 나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1년, 2년,3년 ….. 15년을 기다리고서야 다시 만나 처음 살림을 차리신 봉천동에서 지금도 신혼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사시는 두 분을 보며 몇 년 전 유행한 '파리에 연인' 보다 훨씬 감동적인 드라마 '봉천동에 연인' 을 구상해 보는 건 나

뿐일까?

아~~~ 삼천포로 갔다.

팔순잔치 아니 안희숙 선생님 팔순과 신선옥 여사님 칠순 합동 잔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다.

어느 날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팔순잔치를 하니 낙성대 식구들 모두 꼭 오라고 초대를 해 주셨다. 마침 총회준비에 정신이 없었을 때라 "네 네" 하고 대답하고 일에 빠져들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어라? 누가 팔순잔치를 준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정신없이 총회준비 또 총회준비…….

21차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광고시간에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스러워 그 시간을 이용해 선생님 팔순잔치가 4월 26일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안내를 해 드렸다.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일차 이차 삼차를 지나 더 이상 차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해질 무렵에서야 헤어지고 드디어 다음날 선생님의 팔순잔치 날이다.

물어물어 도착한 팔순잔치 장소에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지들이 와 있었고 전면에는 '축! 안희숙선생 팔순, 신선옥여사 칠순' 플랭카드가 걸려있었다. 그제야 아~ 사모님도 칠순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초빙사회자의 익살 섞인 멘트로 식이 시작되고 이규재 범민련 의장님의 축사와 이기형 선생님의 축시낭송이 있었고 노수희 서울범 의장님의 앙증맞은(안보신분은 모르시는 앙증) 축가가 있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데 있지 않았다. -선생님의 사람관계- 거기에 있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두 분 가슴속에 별로 남으신 따님을 대신해서 이 축하연을 차려 준 것은 처남네 조카따님과 조카사위분들 그리고 처형네 조카와 조카따님들이셨다. 자기 부모들 잔치도 챙겨주기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조카들과 조카며느리 조카사위들이 하나 되어 이모부 고모부의 팔순을 챙긴다는 것이 참 놀라왔다. 물론 열한 명이나 되는 조카들이니 십시일반으로 낸다고는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자면 그 정(情)도 보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나아가 그 조카 분들뿐 아니라 선생님이 그 조카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보통분이 아니시란 생각이 새삼 들었다.

선생님의 살아오신 과정을 모르는 바 아닌데 친척 더욱이 처가 쪽 친척들이 선생님과 갖고 있는 살가운 관계들은 그냥 생각하기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저것 챙기다보면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들이건만 조카들 모두가 이모부와 고모부를 마치 부모처럼 챙기는 것을 볼 때 선생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그 관계들을 잘 가꾸어 가신 때문이리라.

물론 사모님도 톡톡히 한 몫을 하셨을 터이지만.

연회장을 가득 매운 면면들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30년을 살아 오셨다는 봉천동의 지인들과 멀리 이사를 갔으면서도 일부러 찾아준 동네 분들, 출소 후 선생님이 처음 관계를 맺었다는 관악 일사랑 청년들, 거의 소대 수준에 이르는 조카부대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과 사모님을 보며 아마도 오늘이 두 분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선생님의 염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빌어본다.

후기

잔치 후 안희숙 선생님의 약주가 많이 느셨다.
술이 구수~~하시단다.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술은 보약이 되고 기분 나빠서 마시는 술은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보약도 남용하면 더러는 독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법. 감히 이 후배 보약도 조금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오래도록 선생님과 만나는 기쁨을, 가슴 가득 안으며 사람을 느끼는 행복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산행광고

5월 산행

■장　　소 : 관악산
■일　　시 : 2009년 5월 24일 (일) 오전 9시
■모이는 곳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내 만남의 광장
■준 비 물 : 간단한 점심도시락 회비 3000원

강좌광고

정창영 감독과 함께하는 5월 회원월례시사강좌

■강　　좌 : 다큐영화 '경계에 선 인생" (노촌 이구영선생님 일대기)
■일　　시 : 2009년 5월 30일 (토) 오후 5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8번 출구 방향)
■준 비 물 : 반가운 얼굴을 보려는 뜨거운 가슴과 나누고 싶은 어떤 것이든 (이야기 술 안주거리 찬거리 남는 돈 등등)

산업재해 피해자의 아픔과 함께하다

- 양삼봉님을 만나다 -

임미영 | 후원회사무국장

▲농성장에서 회의중인 양삼봉님

▲근로복지공단 앞 농성장

목련이 지고 연보라빛 라일락 꽃 향기가 부는 바람을 타고 맞은 편에 와 닿다.

봄의 변덕스런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반도체사업장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촉구 투쟁농성장에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양삼봉 사무국장을 만나다. 개인에게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가져주지 않는 일이지만 기꺼이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기투쟁사업장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겨우 목숨 줄이나 이어가기도 힘든 또 다른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그나마 희망이 된다.

나라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농성장에서 만나 흔쾌히(김성환위원장의 권유) 양심수후원회의 회원이 돼주었던 터 이 잠깐 동안의 인터뷰로 새로 양심수후원회원이 되신 양삼봉사무국장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여 그가 어떤 진보적 활동공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미영(이상 임) : 산업재해 노동자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양삼봉(이상 양) : 네. 22년 전에 산업재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만나서 모임을 가지고 일종의 친목의 목적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그 2개의 모임이 노동자협의회를 이룬 것입니다.

임 : 양삼봉씨는 직접적인 산재피해자였나요.

양 : 그렇죠. 나로서 그전에 이미 산재노협을 알고 있었고 다치고 난 뒤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직접 상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전북 김제의 다리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해 나 혼자 레미콘 열 몇 대를 비를 철철 맞고 하루 종일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몸에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 4.5일 동안 비가 왔었는데 제 숙소가 산속이고 밥집(식당)이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3일 동안 혼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사흘 만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임 : 그러면 그때 산재인정을 받았나요?

양 : 그렇습니다. 참 웃긴 게 제 경우 업주가 산재신청을 못해주겠다며 며칠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얼 며칠을 기다리느냐 했더니 그때사 좋다 병원에 입원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러면서 얼토당토않게 조건이 있다는 거였어요. 산재보상금을 타면 50퍼센트를 달라며 각서를 쓰라고 해요. 나는 곰곰 생각하다 당장 아프니까 우선 각서를 써주고는 14일이 경과한 후에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임 :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업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군요?
양 : 아 당연히 이기죠. 그 업주는 자신의 검은 속만 다 내보이게 되었죠.
그때 제가 산재노협 같은 단체를 알지 못했으면 제 나이로 당할 수 없었죠. 저는 어리고 사회적 약자였으니까요

임 : 그렇다면 양삼봉씨는 사회부조리라든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양 : 열아홉 살 때 공장을 다니고 했었는데 나와 같이 일했던 선배의 형이 인하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87년 6.10항쟁 때 열렬하게 투쟁했던 형이었어요. 가끔 만나 술 먹으면서 노동가요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노래가 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임 : 노래가 좋아서…….
양 : 네 처음에는 노래가 좋았죠. 그러다가 더 배우고 싶어서 야학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스무 살 때부터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제대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돈 떨어지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또 좀 많은 돈이 필요하면 회사 취직해서 2,3년 다니면서 변방에서 단체 활동을 했죠.

임 : 솔직히 직장에 얽매어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지요.
양 : 하하 그렇습니다. 제가 95년도까지 전노협 문선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임 :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67년생이면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군요. 그런데 왜 결혼은(아차 이런 물음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에 목매단 사람처럼.. 한심하다. 처녀 총각 그 이름만 들어도 신선한데 왜 굳이 그렇게 묻고 있는지! 아. 총각이면 처녀 데려다 소개해주고 처녀면 총각 데려와 소개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대답으로 나의 무색함이 더해졌다)

양 : 결혼은 여자 없어서 못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결혼한 여동생이 있고요
런 활동은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좌절하든지 실망하든지 잠깐이래도 빠져나오고 싶지는 않았는지요?
양 : 네 좀 있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노동운동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요. 물론 지금은 십년 가까이 되다보니 가끔 만나 소주 한잔 나누는 처지이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가서 참 싫었어요. 그때 제가 노동자 노래단을 만들어서 하던 중에 사람들하고 참 많이 부딪쳤어요.

임 : 어떤 일로 가장 많이 부딪힌 거죠. 짐작은 갑니다만..... .그 문제라는 것이 여전히 이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 학력 문제는 아니었나요.
양 : 그랬죠. 그때는 참 심했어요. 서로 섞이지 못하고 잘난척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스스로 끼가 많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활용하는데 노래단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마당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서양의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같은 형태의 노동자마당패 말입니다. 일 년 가까이 사람들 모집을 하다가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잘되고 있는 사람을 빼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며 사람 빼가는 걸로 비쳤죠.
노래패나 풍물패나 노래 창작단은 여러 군데 있었지만 문창반 안에서도 노래나 풍물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나서서 노동조합 문화패를 만들어서 집회나 시위 때 힘을 돋우는 역할을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임 : 그런데 그런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뜻을 굽혔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양 : 저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조직 속에 문화 활동이 속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다만 현장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문화도 현장 활동으로 보고 있었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부딪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가 일 년 동안 어선을 탔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이제부터 문화를 잘 키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난리였어요. 디제이가 서태지를 존경한다고 했던가. 아마 그 영향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뭔 행사할 때마다 오라고 하고 선 끝내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였죠.

임 : 그 좋은 자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나요. 여전히 기웃거리게 되지 않는가요?
양 : 기웃거립니다. 단체에 기웃거리지는 않고
가끔 노래패에 찾아가 낄 자리 있나 없나 이런 정도입니다.

임 : 어릴 적부터 노래 잘했나보죠. 그렇다면 부모나 학교에서 그런 자질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었는지요.
양 : 솔직히 공부는 젬병이었고 체육하고 노래를 잘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죽고 싶다고 했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제 성격이 화를 잘 내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것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하게 남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령 이십 세 때 짚신신고 머리 기르고 한복입고 다녔어요. 어쨌든 제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소심해지는 성격이 되어가네요

임 : 네 그렇군요. 다시 하시는 일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세요. 산재노협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 : 11명 상근 활동을 하죠. 대표는 총괄하고 저는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상담부장은 환자들 상담하고 심사 청구하는 일 등을 하구요.

임 : 이런 단체의 활동을 많이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죠.
양 : 저희는 주로 서울지역 병원 광명성애병원 안산지역의 병원을 방문하여 병실마다 일일이 찾아가죠.
선전물 나눠주고 상담요청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관련 잡지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통하여 가끔 홍보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단체가 경상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가능한 쪽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임 : 이야기 듣다보니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는 일이네요. 감히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양 :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운동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관련 단체가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단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산재노협은 인천과 서울에 있습니다.
지부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단체의 전대표가 내려가서 인천 산재노협을 창립 하여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상담조차 돈을 받고 하는 브로커들입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돈 뺏기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또 법정에 까지 갈 때는 우리를 지원하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소송에 들어가데 되는데 일반적인 변호사는 20~30퍼센트의 수임료를 받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인권담당변호사는 5~7퍼센트 사이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후사로 몇 백만 원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안내합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죠
실제로 아는 사람 통해서 만만히 않은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회원과 친구 분이었는데 보통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데 다행하게도 심사청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친구 분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후원하도록 연결해주었습니다.

임 : 그런 돈은 받아도 되지 않나요?
양 : 그런 돈을 받으면 상담해주고 돈 받는 부로커나 다름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저희는 항상 씨엠에스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원으로 후원하기를 유도합니다.
처음엔 그것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합니다.
솔직히 상근자가 열한명이나 되고 항상 상근비가 밀립니다. 재정사업으로 디엠발송을 하는데 기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수 할 수 밖에 없는데 상근자들이 재해 입은 분들이라 힘에 부치고 특히 종이나 신문이 무겁기 때문에 근골육계통을 다 앓고 있습니다. 일이

정말 많으면 이웃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같이 하게 되어 비용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 : 산업재해라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깊은 병폐라고 봅니다. 그 병폐를 치유를 위해 이 활동(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 : 저희는 민주노총에서 지지하는 금속노조 건강권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로지역 대림 신길동 지역에 선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왜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유해한 사업장내에 환풍기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조건 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제를 국제 연대하여 참석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산재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왜 다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장래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 말하자면 그런 문제부터 출발점으로 삼는 거겠지요
양 : 그렇습니다. 작업장마다 '위험한 작업장' 이라는 스티커 붙이는 것-물론 사용자들이 우리가 가는 즉시 제거하겠지만- 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재보상은 참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임 : 그것은 보상에 대해서 말인가요.
양 : 그렇죠.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에 대해 70퍼센트를 보상받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같은 나라라 해도 50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그런 나라들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장해를 당한 사업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임 : 우리나라는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보상을 받으면 다시 복귀할 수 없나요
양 : 네 형식적으로는 복직은 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곧 해고당하게 됩니다.

임 : 사실은 보상이라는 것은 재해 입은 -말하자면 손가락이 장애를 입었다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이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고가 된다면 좀 난감하네요.
양 : 독일의 경우 보상비는 많지 않지만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뿐 아니라 평생 치료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임 : 우리는 돈 몇 푼 쥐어주고 끊어버리는 셈이네요.
양 :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주지 않느냐고.
독일이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그 사람이 장애를 입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계속 그 보장을 받으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산재보상이죠. 우리는 보상금 몇 푼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나가야 하죠.
솔직히 말해서 평생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일자리에서 나와서 무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장애를 입은 몸으로.. 보상금 일억 받아서 무엇 합니까?
장사하더라도 일 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회보장제도의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민주노총이든 시민사회단체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행사는 어느 정해진 달에만 하죠.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인 셈입니다.

임 :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격상 모든 사람 -특히나 노동자계급-이 잠재적으로는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산재노협과 같은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담이지만 얼굴로 봐서는 동안이지만 소심증을 극복하여 동무이고 동지이고 반려자인 여성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소리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음 더욱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바쁜 중에도 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안을 잠재우고서

양희철 | 출소장기수 양지탕제원원장

지담을 앞세우고 세 식구 집을 나섰다. 찌푸린 하늘이 금세라도 비를 뿌릴 것만 같다. 보름 전에 예약됐던 터라 출국수속은 간단했다. 이렇게 외국 나들이는 시작되었다.

풍정을 엿보고 이국의 물산과 수택산세를 관광하고자 했음도 있겠으나 다분 억눌린 일상을 떨치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해서 떠났다.

11시간 30분의 비행, 런던이란 동네에 도착했다.

산업혁명을 거쳐 비축된 힘은 제국주의의 본성, 침략과 약탈 살상과 파괴로 세계제국을 아우렀겠다. 대영박물관이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예컨대 다른 박물관과 달리 대영박물관은 입장 관람료가 없다. 안내자의 설명, 진열 및 소장품 중 자국. 자국민의 소산으로 써 작품이 13%이상일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단다. 이 13%가 어 대다 근거했는지에 대해선 못 들었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경이로움 이었다.

고대 에집트가 재현된듯하다. 거석문화의 역사가 당시 대성을 함축한다. 파라오의 권위와 통치와 징집된 백성들의 참혹상을 보는 듯하다. 에집트와 인접, 홍해 건너 페니키아의 고대문명은 에집트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 아니었을까? 페니키아의 과학과 문명은 감탄을 불러낸다.

한데 오늘의 영국은 어떠한가. 기울어가는 아메리카에 빌붙어 허울만 그럴싸할 뿐 풀이 축 죽어 있다. 밀물 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테임즈강은 녹슨 철선을 눕혀 둔 채 타워브릿지 밑을 흐르고 있다. 어젯날의 영광이 언제 있기나 했었냐는 듯…….

천년사직이 남가일몽이라 했던가. 대영제국만이 기우는 게 아닐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서도 그 침략의 본성을 떨치지 못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삼고 있는 yankee들이라고 성해내지야 못하는 법. 아프간에서 이락에서 요즘은 그루지아에서 노쇠한 몸 이끌고 비틀대고 있다. 과하면 넘치는 건데…….

유로스타를 빌려 도버해저를 통해 빠리에 들렸다. 영국에 비해 좀은 밝다. 거리의 풍경도 사람의 의상도 말씨와 표정도 쌍제리제 거리의 화단과 가로수만큼이나 화려하고 밝다.

에펠탑에 올라 빠리를 훑는다. 어제 봤던 베르사이유가 저만큼 물러 앉아 있다. 영고성쇠. 한때 태양왕 루이 14세의 군림에서 누린 권세와 영화. 루이 16세의 왕비 앙투와네트의 호사스러움에 이은 비참을 함께 새겨 논 그곳 베루사이유 궁전도 멀리 비추인 전경일 뿐이다.

루브르 미술관을 찾았다. 기대에 부푼 마음을 달래면서, 프랑스가 부당하게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국보급의 귀중한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1377년 7월 하권이 프랑스에

있음) 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한데 직지심경= 직지심체요절을 못 봤다. 국립도서관에 있단다. 서운함을 누르고 미술관을 둘러봤다. 소장품이나 전시된 작품들이 로마의 그것이나 런던의 그것들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중평이란다. 침략과 약탈의 제국주의 본성을 무엇으로 감추고 덮을 수 있을까 전시된 한 점 한 점에 품겨지는 고도의 예술성과 미의 극치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조화가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세계분할을 주도했던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과 후발주로 나선 미국. 이들의 약탈 만행의 죄악이 가려질라구. 전시측의 궤변을 들어 본다. "우리(영국. 프랑스)나 되니까 에집트나 페니키아의 석물과 벽화 예술품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 고.

일본 녀석들의 망언, '조선을 합병하고 물산을 장려하며 철도를 부설했기에 오늘날 KOREA가 있게 됐다'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문화의 탈을 쓴 야수성과 오만이 침략과 살상을 일삼았던 어젯날을 지우고 품위와 등위를 운운한대서야.

같은 위도 상에서 높낮이에 따라 사계를 함께 펼치고 있는 곳 중 알프스 융프라우요흐 밑에 전개되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강물이 넘치고 빨갛게 익어가는 능금과 연둣빛 아롱이 알알로 포도가 탐스럽다. 치올려 보이는 봉우리엔 하얀 눈이 덮였고 산중턱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금세 눈발로 뿌린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풀꽃이 청라의 목장을 치장해 꾸몄다. 우리 지담이 감탄을 섞어 말한다. " 아빠!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좀 춥긴 하지만."

산정에 나부끼는 스위스 깃발을 보고 찰나적 명상에 젖어들었다. 분단된 내조국 통일을 이루고 백두산 한라산 정상에 세워져 펄럭이는 우리의 통일 깃발을 그려보았다. 깃발을 치마인 냥 두르고 도약하는 우리 지담의 모습을 보았다.

로마는 거리도 허물어져가는 건축물도 한발 한발 딛고 오르내리는 계단도 그대로의 박물관이다. 융성을 말하기보다 멸망의 비애를 그리고 새겨 놓은 것처럼. 라파엘도 네오나드드 다빈치도 만나고 바티칸 시국의 한 낮 더위가 피곤한 하품으로 내려 자자들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버스도 택시도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없는 도시 . 곤도라의 악사가 출렁이는 물결에 맞추어 목청을 높여 관광객의 무료를 달래주는 곳 베네치아. 몇 세기에 걸쳐 바다를 나무기둥으로 다져 건설한 도시가 인상적이다. 700년 보통은 4~5백년된 건물이 대부분인 도시 베니스. 수상택시와 버스가 종횡으로 통하는 운하를 누빈다. 매연이 적은 도시, 시원이 불어주는 바닷바람이 찌든 폐부를 씻어준다.

인스부르크의 산간도시. 오다 개다 내리는 비. 동계올림픽을 두 차례나 치른 도시,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다. 모찰트가 머물렀다는 집과 거리. 고색창연한 옛집들의 건축양식이 이채롭다. 겉과는 달리 황금성당의 내부는 화려와 사치의 극치지 싶다. 도금도 아닌 순금으로 조성한 작품 하나하나가 당시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이곳 인스부르크에서 맛본 사과는 우리 고향 장수 사과의 맛과 비견할 만하다. 시원한 맛 신듯 달콤하고 은은한 맛은 일품이다.

오지리의 국경을 넘어 독일 . "오우토방"의 넓

은 길은 세계2차 대전 전 히틀러가 만든 길이다. 세계제패를 꿈꾸고 만들었던 길인데 넓혀진 길을 따라 오늘은 내가 달린다. 흑림은 치산의 표본. 잘 가꾸어진 나무숲이 산과 도로연변을 검게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감자밭과 옥수수 밭이 프르름으로 싱그럽다.

푸랑크푸르트의 밤은 오히려 조용하다. 네온도 간판도 요란이 없다. 중후하면서 실속 있게 보이는 도시. 세계금융의 중심이란다. 스위스의 은행들이 세계 정치적 망난이들의 도피자금 관리부실로 주춤하는 사이 푸랑크푸르트가 부상하는데 속도를 냈다 한다.

하이델베르크에 잠간 들려 칸트도 만나고 괴테도 쉴러도 듣고 본다. 노벨상 수상자를 7명이나 배출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도서 보고 대학주점의 원조라는 주점에서 맥주로 목을 축이기도 했다. 주점에 들렸던 이름 있는 이들은 글줄은 물론 사진도 초상화도 흉상도 있다. 대부분 하이델베르크 대학생이겠지만, 지나는 나그네인 나처럼 외국인도 많은데 그 중엔 출세 후 다시 찾은 이들이 적잖단다.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12일간의 여정을 마감하려 푸랑크푸르트에서 비행을 시작 10시간여 날아내린 인천공항. 서울의 정가는 어지러워 사납고 촛불 축제는 100회를 사루고 있었다.

사계를 휘젓는, 알프스의 오만, 나라 말씀도 사람의 종자도, 산색도 흐르는 물빛도 다른, 너 거느린 봉봉의 웅자만으로 유럽을 압도한다.

주마간산 수박 겉 핥기, 국경을 넘나들며, 도시와 거리 돌았다만, 모를레 풍정을 모를레 세평을. 해서 얻었어라. 수려한 산천조국. 한겨레 한 핏줄. 귀하고 빼어난 내 이웃을.

– 2008년 8월 20일

알립니다

6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30회)

■일　시 : 2009년 6월 9일 (화) 늦은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 조선의 별 4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2년 제작, 75분 상영)

■줄 거 리 :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모습을 그려낸 이북의 대표적인 혁명영화. 제4부 '잊을 수 없는 여름편' 은 1931년 봄 명월구회의 이후 무장투쟁의 대중적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들이 각지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신념이 없는 용감성은 더 강한 자 앞에는 쉽게 꺾어지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드니까 끝내는 조국도 팔아먹는다라고 말씀하신다.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완 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촛불시위 구속자 열혈국민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몸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어느덧 봄기운이 따스해 지면서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는이때 새싹이 돗우는 꽃들이 화창하게 피고 있듯이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모든 행사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성사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같은 구속자들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셔서 구치소 생활을 무난히 지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MB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듯이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작태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들은 한결같이 MB의 독재정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기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립시키고 각인하고자 인권운동과 민변단체들의 협동으로 꾸준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생님 저는 2009년 6월21일 만기출소기일입니다.
벌써 8개월이상의 자유를 빼앗기고 울분을 토하고 표출할 것을 석방이후로 삼고자 합니다. 동지들이 희망을 되찾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하여 서로 단결 할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하여주신 점에 대하여 서신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 2009년 4월 열혈국민촛불구속자 김동완 드림

이정이 님의 편지

존경 하는 권오헌 성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모든 지인들과 많은 자식들이 염려 해주시는 덕분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구금된 지도 2個月이 되었군요.
선생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동의大 5.3이 일어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후방도 아닌 전방에서 투쟁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것인지.....
이 아름다운 한반도가 60년 이란 분단된 이 조국 걸레보다 더러운 놈들 일본에 하수인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니 미국에 찰떡같이 붙어버린 남의 하수인들 우리 선생님들은 45년이란 긴 세월을 0.75 방에서 한 생을 마감하고 계속이어지는 군사 독재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자식들을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해방.인권.자주.평화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다 고문으로 최루탄으로 공권력으로 죽어가고 감옥에 가면서 그나마 조금은 민주주의가 되고 통일의 문이 열리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길에서 몇십 년을 한길로 걸어오시는 선생님을 뵈올 때면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한 번도 크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냥 받기만 하는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가 걸어왔든 길을 어떻게 다 나열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으로 두면을 보고있습니다.
어제 밤에 김창현 동지 꿈을 꾸었는데 좋은 꿈이 아니었나 봅니다. 옆 분이 보는 조선일보를 보니 국민 행동본부 서정갑,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상훈 오늘 금 2시 서울 장충 체육관, 노무현 구속촉구 국민궐기대회 보

면서 피가거꾸로 서는 기분입니다.
권선생님!
바쁘신 데 새 대표님과 함께 오셨다가 그냥돌아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밖에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는 박종철父 이한열母 강릉, 광주 유가협 부모님들이 다녀가셨고, 4月24日에는 함세웅, 이영우 신부님이 특별 면회를 하시고 기도하고 영성체 지 하고가셨습니다.
사순절 추기경님께 편지 보낸 것 말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해서 내보낸 편지가 이강철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가 살아왔던 길을 두서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 부 복사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온 땅이 굳어지듯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통일된 좋은 세상을 주는것이 우리들의 보람 하니겠습니까? 저가 몇 개월 여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인권위원회가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모두에게 다행입니다.
선생님. 저는 구금된 것 말고는 20년 만에 아주 평안하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시는 모든 지인들과 동지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선생님! 항상 차분하게 글월 올려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고 혈압이 올라가서 글이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재판 날에 뵈옵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을 이만 줄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2009.4.27.밤에 영등포구치소에서 이정이 드림.

p.s 종철이 86년 1月이 87년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함신부님 보내주신 의사 안중근(도마) 오늘 새벽부터 읽어보니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취급처 :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원 Tel: 02)3672-0253 팩스:02)3672-0255
양심수들이 구해서 읽으면 좋겠음.----------;;;;;;

감옥에 있는 아빠에게 범민련 이경원사무차장 아들 강이가

아빠
어제 아빠를 위해 꽃과 편지를 썼는데, 드릴 수 없어서 슬펐어요.
만약 아빠가 계셨으면 활짝 웃으며 안아줬을텐데... 정말 슬퍼요.
저는 하루 빨리 아빠가 풀려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빠가 잡혀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슬프기 때문이에요.
그 슬픔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느끼게 되요. 왜냐하면 수술은 한 몇 번 아프고 말지만 아빠가 잡혔다는 고통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만약 아빠가 구속되면 그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질거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아빠가 나오신다면 나의 고통은 떨어지고 그럼 고통 대신 기쁨으로 가득차게 될 것 같아요 아빠 아빠는 제 곁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놀러갈 때에는 아빠의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질 것같고
아빠가 있는 다른 애들을 보면 부러울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빠 저는 아빠랑 밥도 먹고 뒹굴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구속되지 말아주세요!!!

– 2009 5월 2일 아빠를 생각하는 아들 강이올림

장민호 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회장님, 그리고 임미영, 소수영, 모성용, 송지영...
동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대전에 있는 장민호입니다.
작년에 저들이 일찌감치 본색을 드러낸 광기어린 폭압이 오랜 굶주림에 이성을 상실한 자들의 그것이라면, 작금의 그것은 대중의 큰 힘에 한 번 놀란 저들의 무능과 두려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이던 동지들의 안위와 건승을 빌 뿐입니다.
아직 못 다한 말씀들이 남아있어 부족한 글들을 재차 첨부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언제나 투쟁의 현장을 지키시며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소중한 지면을 마련하여 주시는 회장님, 그리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쇠창살 1

금지하고 차단하고 막아서기 위하여
거기 그렇게 일렬로 늘어선
쇠창살.
집게손가락을 1자로 치켜세우고
오직 [사상의 자유] 하나만은
절대로 안된다며...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말 그대로 자유라는데. 예컨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길 자유.
민족대결, 동족상잔을 공공연히 선동할 자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탈하고 착취할 자유.
이 모든 자유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모든 자유들에 대한 저항의 자유를
법, 질서의 이름으로 압살하거나,
저항하는 언론의 목을 비틀어
언론의 자유를 교살하거나,
타오르는 불길 속 마녀사냥으로
옥상 망루에 올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자유, 생존의 권리를 목 놓아 외치던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을 태워 죽여도
멀쩡하게 살아 마음껏 숨 쉬고 있을 자유까지.

언제나 이미 「특별사면」 된 저들의,

말 그대로 자유! 자유들의 대잔치!
오직 [사상의 자유] 하나만 빼고는
모두 자유, 만사형통이라는데.

혹은 이 모든
저들의 자유에 굴종하여
우리들이 침묵하고 방관할 자유.
그리고 자유롭게 착취당할 자유. 그것이
비정규직 「알바」 라도 눈물겹게 고마울 뿐인,
그러다가 결국 실업자 될 자유.
이제 더 이상 비참해질 자유마저
거추장스러워
사람이기를 포기할 자유... 등등.

한 마디로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
죽거나 산 주검으로 살거나!
오직 양자택일이라며
우리들의 두 손에 저들이 쥐어 준,
자유의 탈을 쓴 예속과 굴종의 자유까지
압제와 기만으로 얼룩진 이 땅의
자유. 자유들의 대행진.

이제 우리들의 두 손에 쥐어진
기만의 자유.
굴종의 사상을 단호히 팽개쳐 버리고
잃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두 손으로
두 주먹 불끈 쥐어 힘차게 치켜들며
저들의 자유의 대행진을 온 몸으로 막아서는.

지금 당장. 예속과 착취의 잔치판을 걷어치우고
저들의 모든 「특별사면」 들을 박탈하라고 외치며,
산 주검으로 살아갈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들. 다름 아닌
사람의 자유!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모여
홀가분한 맨손들.
손에 손들고 맞잡고 하나가 되어
우리들 운명의 주인으로 일어서는
세상의 모든 자유 중의 자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민중의
사상의 자유!

지난 반 세기.
도대체 왜, 오직 그것만을
금지하고 차단하고 막아서냐고
우리들의 피 맺힌 함성으로
묻고 또 물어도.

녹슬고 시커먼 쇠막대기만
분단 조국의 깃발처럼
필사적으로 치켜세운 채.
묵묵부답, 부동자세로 북위38도 군사분계선을 따라
기인 철조망을 온 몸에 두르고
거기 그렇게 일렬로 늘어선
쇠창살!

쇠창살2

그래보아야
비루한 육신 하나간신히 가둘 뿐인
한 평 독방의 손바닥 만한 창문을
잔뜩 움켜쥔 채.
시퍼렇게 일자(一字) 힘줄을 세운
너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저 맑고 투명한 하늘,
한 무리 구름이며 새들은
너의 수고에 눈길 한 번 죽지 않으며
유유히 제 갈 길 재촉할 뿐인데.

아침이면 환한 햇살은
온 세상을 밝히며
네 뻣뻣한 옆구리를 툭 치며 들어와
무러가는 어둠의 끝자락을
애써 막아서는 너의
부질없는 노고와 힘줄을 조롱하며
한 평 독방의 구석구석마저
남김없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공허한
너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지상의 모든 초목과 꽃들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푸르름 다하여.

저 광대한 창공을 가득 채운
끝 모를 푸르름 속으로
애시당초 너 아닌, 세상의 그 누구라도
금지하고 차단하고 막아설 도리 없는
사상의 날개를 떨치며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그리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저 맑고 광대한 하늘 아래.
언제나 새롭기만한 푸른 초목과 꽃들과
인간의 땅 위에
참으로 쓸모없는 외톨이, 일자(一字) 쇠막대기.
북위 38도 군사분계선을 따라
기인 철조망을 온 몸에 두르고
분단 조국의 늙은 초병처럼
쓸쓸히 홀로 녹슬어 갈 뿐인
쇠창살!

쇠창살3

이 땅의 모든 푸르름
모든 생명의 빛깔들이 어울려 춤추는
5,6월이 오면
이제 녹슬고 시커먼 그것들을
뽑아 버리자!
7,8월의 태양의 작열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자!
교도소 한 평 짜리 독방의
녹슬고 먼지 낀 창틀에서.
우리들의 굽은 어깨와
짓눌린 척추,
외면하는 두 눈.
못들은 체 하는 귀와
침묵하는 입, 그리고
멈칫거리는 두 발과 모든 의구심들로부터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들.
저들의 선처를 구걸하는 두 손과
굴종의 사상의식에서!

굽이치는 백두대간의 푸른 능선 따라
굵고 기인 주름살.
피눈물 흥건히 배어 든

깊게 패인 상처. 상처들.
상처의 깊은 골들로부터 그것들을
모조리 뽑아 버리고
조국의 허리를 가로 지른
북위 38도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의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이며
온 겨레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만나
두 손을 맞잡고,
분단의 세월처럼 기나 긴 철조망을
모두 걷어 버리자! 내친김에
철조망 따라 덩달아 늘어선
저 녹슬고 쓸모없는 쇠말뚝, 쇠창살들도

모조리 뽑아 들고
그들을 쇠몽둥이 삼아
저들을,
예속과 착취의 사슬을
매우 쳐 끊어버리자!
– 2009. 5. 대전 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추신: 지난달에는 민족21만 접수되고 후원회 소식지(2009. 4. 통권210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 측에 확인하였으나 접수기록에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 가능하다면 받아볼 수 있는지요.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알립니다.

● 회원들의 회비를 재정부족으로 매달 1일에서 5일 기준으로 결산하던 것을 21차 연도를 기점으로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회비 명단 누락되신 분은 다음 달 명단으로 미루어지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민중의 소리에서 펴내는 '말' 지가 지난 4월호부터 정간되었습니다. 복간되는대로 다시 양심수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범민련 탄압은 민간 통일운동 탄압이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당연행. 압수수색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

양심수후원회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간통일운동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7일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내세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중앙과 지역사무실 그리고 주요 전현직.활동가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남측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범민련 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일운동단체 활동가 등 6명을 강제연행하여 이적단체가입.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해 9.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집행간부들의 연행 구속에 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공안탄압의 되풀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표단 공동선언으로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로 출범하였으며 남측본부는 1990년 8.15일 제 1차 범민족대회에서의 공동결의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었다. 바로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강화하고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1991년 1월23일 고 문익환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따라서 범민련은 남.북 어느 정권에서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동조.추종하지 않고 오직 민족공동이익을 위해서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 정신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공안당국이 범민련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강령만 보더라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국가수립을 목표로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벌여나간다고 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간섭을 배격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체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사이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리. 공영을 도모한다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하며 이북을 찬양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실재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사이 교류 협력을 선도하며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였다. 노태우군사정권시대 준비위 발족과 함께 탄압을 받았고 특히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김영삼정권 시기인 1995년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 등 본부와 지역연합조직 30여명으로 지도부를 구속기소하는 대탄압과 함께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우게 되었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남북사이 합의 이행에 합법적으로 헌신을 다해왔다. 공안당국에서 말하는 회합. 통신을 오늘 대부분의 6.15남측위 소속단체나 사회문화교류단체 경제협력단체 대북지원단체 등 수백 개 단체가 팩스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모든 팩스 교환을 통한 자료를 공개해 왔으며 한때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또한 '민족의 진로' 등 기관지 발행도 100회가 넘도록 아무 제재없이 이

어오고 있다. 이같은 출판물들은 이적목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남북간의 실상을 알려내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통일을 위한 통일운동단체의 기관지 일뿐이다.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의 반영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연장이기도 하다. 지난 해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밝혔던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뒤를 이어 정부비판을 위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 형식을 빌린 불허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집시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하고 있고 마침내는 가진 자들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던 원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터전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의 요구농성을 단 하루 만에 살인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탄압에서 특히 국가보안법 강화와 폭압기구로서 국정원의 권한강화 시도를 가벼이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북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조직된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공안당국의 임의규정으로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은 옛 중앙중보부의 안전기획부 시대로의 회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보와 기밀수사 등 특권을 가지고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안보에 치중하며 부당한 정치개입 기본권 침해 직권남용을 자행해왔던 과거시대 돌아가려는 조짐은 최근 이명박정부가 국정원법개정을 비롯하여 통신비밀법. 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련법 등 제.개정시도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꾀하고 있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한때 국정원은 국가보안법관련 수사권 행사를 자제해 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번 실천연대사건에 이어 이번 범민련 탄압처럼 국정원이 수사권행사를 통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 확대 하면서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사실상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정보기관이 인혁당 재건위사건, 수지.김사건, 동백림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냈던 사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정신에 따라 합법적이며 공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간통일운동을 해오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발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또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더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 과거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구로만 존속시키고 모든수사권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모든양심수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다.

– 2009년 5월 8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고 김세진이재호열사 23주기 추모제정치연설

김동균 | 서울대공대학생회장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 4월의 의미는 불의와 모순에 대한 '항전'이기도 했다. 4월 혁명이 그렇고 '용병반대 양키 고 홈'을 외친 김세진 이재호열사 외침이 그러했다. 그러나 '4월의 사자'들이 독재의 칼날에 숨져갔고 신림네거리에서 항미열사들이 장렬한 죽음을 선택한 참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면에서는 잔인한 4월이기도 했다. 4월은 그러나 움트고 터져나오고 솟구쳐 오르는 계절이었다. 예속정권의 독재에 맞서 식민지 용병에 맞서 민중과 민족의 분노를 폭팔시킨 4월은 두껍게 얼어붙은 허위의 껍질을 깨는 장렬한 용단이었다. 해마다 4월이며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용병반대' '전방입소반대' '양키 고 홈'을 외치며 장렬하게 산화해간 이재호 김세진 역사의 추모제가 열린다. 지난 4월 28일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23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주최로 추모제가 열려 '벗이여 해방이 온다'며 그대와는 불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두움 뒤집어 새날 새날을 여는가!'며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반전 평화 자주 통일을 다짐했다. 이 추모제에서 있었던 서울대 김동균 공대학생회장의 정치연설을 여기에 싣는다.

-편집자 주-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뿌듯하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투쟁 속에서 그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고 김세진 열사.

"저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물질적 봉양만으로 생각하기 않고 있으며 효도는 첫째, 올바르게 사회에 봉사하는 의연한 삶을 개척하는 것. 둘째, 승리로써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이재호 열사.

이렇게 산화하신 두 분 열사이십니다. 온 몸 던져 싸웠던 두 분 열사가 계셨기에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민중의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 열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까.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검게 탄 육체와 수많은 선배 열사들, 그리고 민중들의 피를 거름으로 발전한 역사! 2009년, 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동들의 발악 앞에, 우리는 한 순간도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치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변화합시다. 실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을 참으로 해방된 모습으로 바꿔 나갑시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처절히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의 주동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곧 역사 발전의 반동이 될 것이고, 민중의 적으로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합목적성,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믿고 산화하신 열사의 염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부족한 후배로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열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이 곳 아크로폴리스에서 열사의 후배로서 저부터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전쟁 책동을 막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해내는 데에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사 앞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5월, 함께 광주로 갑시다.) 1980년 5월 광주민중들의 영웅적인 항쟁을 파쇼의 후견인, 침략자 미국의 실체를 완전

히 폭로하고 이 땅의 반미통일투쟁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김세진, 이재호 수 많은 열사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의 투쟁의 성지 광주로 갑시다. 오늘 이 곳에서 두 열사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5월 광주로 갑시다.

광주 영령들 앞에서,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광주 영령들이 염원했던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우리 청년학생의 손으로 열어낼 것을 다짐하고 옵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7대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 공과대학 4학년 김동균입니다. 추모제에 오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3월, 휴전선 일대 한반도의 하늘은 미국의 침략전쟁 무기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수천킬로미터 밖에서도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토마호크 미사일, 상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스텔스 폭격기가 폭격 및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북한을 점령한다는 끔찍한 작전계획5027에 따라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수 만 명의 주한미군과 무수한 핵전쟁무기들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핵전쟁 훈련,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국의 증원군이 민항기를 타고 대구공항을 들락거렸으며, 북이 공단을 위해 군 부대를 모두 철수시킨 개성에서 1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경기 북부 주한미군기지에서 전쟁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략하고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베트남을 침략했던 미국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 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해 느닷없는 폭격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집과 친구와 웃음과 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발도 채 신지 못한 맨발의 아이들이 인생의 정오를 맞기도 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진데, 미국이 공연히 침략하겠다는 데 그 누가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북 동포들이 느끼는 전쟁 위협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평화롭게 살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번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난 4월 5일을 떠올려봅시다. 북은 단지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뿐인데, 휴전선 일대의 남한 군대는 전군 비상 태세에 돌입하였고 동해에 첨단 이지스 함을 배치하였습니다. 동해 상공에는 미군의 조기 정보기가 날아다니고 일본은 도쿄 일대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였습니다. 인공위성 발사가 어느새 선전포고로 둔갑하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도 전쟁명분으로 만들어내는 한미일의 반북호전세력들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군사위성, 스파이위성,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인공위성을 이미 발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기 않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택, 6자회담 대화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며 광분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남북관계의 기초를 모두 파괴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해적질 PSI 참여를 운운하며 전쟁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의 사태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자신들이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와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는 이 땅의 평화의 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전쟁동맹을 가만히 두고서는 결코 우리 민족의 자존과 생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의 전쟁 레이더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림팩, 한미 해병대 합동훈련, 용감한 방패. 올 해에만 해도 대규모의 전쟁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올 해 뿐입니까? 쉴 새 없는 전쟁위기! 1994년, 1998년, 2003년, 2006년, 그리고 지

금! 이 지긋지긋한 전쟁 위기는 모두 본질이 똑같습니다. 일방적인 무장해제 강요, 핵전쟁 위협, 어렵사리 이룬 합의의 파기! 모두 미국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볼모가 되어 마음 졸이며 살아야합니까? 전쟁은 한 번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기지 않았습니까? 전쟁 위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침략 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들, 그 어느 곳에나 우리 민중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내 조국 한반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반미반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듭시다. 반미반전! 미국의 대북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평화를 지켜냅시다. 바위처럼 뭉친 신심어린 저항 의지라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확고히 바꾸어내는 투쟁에 청년 학생이 똘똘 뭉쳐 나섭시다.

친미수구세력을 뿌리 채 뽑아내지 않고는 역사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역사는 얼마나 거꾸로 갔습니까? 수많은 열사들과 민중들의 투쟁이 아로새겨진 자주, 민주, 통일의 성과물들이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한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을 핵으로 선제타격" 하겠다는 자가, "유사시 북 본토를 공격" 하겠다는 자가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입니다. 굳이 북의 국기를 표식물로 가져다 놓고 폭격을 하는 군사훈련을 해야 성이 풀리는 정권입니다. 경제와 민주주의를 파탄 낸 것도 모자라서, 이명박 정권은 전쟁이라도 벌여 이 땅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반평화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센 반전평화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미동맹을 반드시 끝장내버릴 것입니다.

23년 전 열사의 외침 "반미반전, 양키 고 홈!" 그 절규가 지금 저의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한 생을 바쳐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선배 열사의 순결한 마음이 저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학생들부터 앞장서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냅시다. 미국은 우리 칠천만 겨레의 생명의 무게를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사 더러움의 절정 전쟁은 우리 조국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반미반전 투쟁으로 민족의 안전이 담보되는 평화체제를 반드시 수립해냅시다. 시대는 청년학생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산행

박윤경 | 회원

아침에 눈떠 창넘어로 들어오는 햇살의 싱그러움이 오늘 산행의 기대감을 한층 더 올려주었다. 6.15 한마음 산악회 발대식에 처음 참여하여 자주는 아니어도 틈나는 대로 '참석' 하며 참 좋으신 분들과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다.

계절마다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자연의 모습을 그 안에서 듣는 강의와 숲에서 담소를 나누며 함께하는 점심식사.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지금껏 별 다른 의미없이 산에 간다. 산에 오른다의 개념보다는 그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진 단체속에서의 또 다른 소속감. 그 안에서의 친밀감 같은 것들이 산행을 여러 번 다녀오며 느껴진 나의 감성으로 다가온다.

이번 산행은 더욱이 다른 산행 때와는 사뭇 다르게 4.19날 가게 되었다. 4.19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첫선을 보게 된 날이기도 하며, 4.19의거로 먼저 가신 애국 선열들이 고이 잠드신 탑에도 가서 묵념도 하고 그 선열들의 깊은 뜻을 다시금 되새기면 현재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들을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살맛나는 세상, 인간답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있는 세상,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고개숙여 깊은 감사와 다짐의 시간들 또한 가졌다.

이번 산행은 4월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진달래능선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늘상 계절이 되면 보는 꽃이기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거나 슬쩍 보는 것으로 여겨진 부분들이 이번 산행을 통해 능선따라 이어진 꽃들의 향연 그리고 꽃들의 색깔과 크기, 모양,빛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빛깔들이 얼마나 각양각색이고 다양하게 보였는지 보면 볼 수록 꽃,나무,숲,나아가 자연이란 거대한 장관 앞에서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소리에 잠시 귀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산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뒷 풀이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번 장소는 재미난 밥상"이라는 유기농재료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었다. 식당이름이 여느 가게와는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서민적이고 소박함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모두들 둘러 앉아.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며 산행의 고단함과 즐거움들, 함께하는 동안에 산행에 함께 오신 후원회에 계신 분께서 어찌 아셨는지 내 생일이라고 일부러 슈퍼에 가셔서 케익대신이라 하시며 초코파이와 거기에 어울리도록 요플렛까지 뿌려 어색하지만 큰 초까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셨다. 그 어떤 크고 값비싼 케익보다도 40년 넘게 살아오며 아주 소박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축하를 받고 오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 순

간 코가 시큼하고 어느샌가 붉어진 눈시울을 타고 흐르려는 눈물을 애써 감추었다.

선생님 한분이 사진까지 찍어주셨고, 너무나도 감사했다. 이렇듯 산행을 다니며 인간관계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끈끈한 유대,정,고마움,감사함이 더욱 와 닿는 산행이었다.

그 날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이글을 통해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처음 써보는 산행기라 쓰면서 내내 어색하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끄적끄적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총회보고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21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고성화선생님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지방에서와 수도권지역의 장기구금양심수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 한국진보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통사 민족문제연구소 등 사회단체 대표와 통일원로 민가협 유가협 양심수후원회원 등 18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사전행사로 양심수후원회 활동상황 영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모성용 운영위원 사회로 총회선언과 민중의례가 있은 다음 김규철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 권오헌 회장의 오신 분 소개에 이어 노래패 '희망새'와 대금연주가 이정래씨의 특별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비전향장기수고성화선생님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회장 이기형 민족시인 등 격려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21차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노중선 지도위원이 해주셨고 20차연도사업과 결산보고를 권오헌 회장이 하였고 회계감사를 감사이신 진관스님이 하여 큰 박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어 모범회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먼저 남녘땅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통일원로이시고 멀리 제주에서 계시면서도 한결같이 양심수후원회 행사마다 참가하시면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비전향장기수 고성화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이어 회원활동과 한결같은 성원을 해주신 김재선 최은선 모지희회원과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정론지를 양심수에 보내달라며 3년이 넘게 양심수후원회에 보내고 있는 월간 '민족21' 정창현대표님께 각각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새일꾼뽑기에서는 총준위안을 큰 박수로 인준하여 새회장에 김호현 전 부회장이 부회장엔 김지영 내과원장이 유임되고 새로 모성용 운영위원을 상근 부회장으로 운영위원으로는 별표와 같이 뽑혔습니다. 감사선출에서는 강정구 교수님과 진관스님의 유임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새로 뽑힌 김호현회장은 권오헌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제의를 하여 큰 박수로 승인을 받았고 김규철 김영옥 노중선 박중기 이강일 홍근수 목사님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지도위원, 명예의장, 회장단, 감사, 운영위원, 사무국 일꾼과 대구.대전지역 양심수 일꾼들이 모두 나온 가운데 김호현 새회장이 앞으로 양심수 후원회를 이끌어갈 다짐하는 대표인사를 하였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에게 고성화선생님이 양심수 후원회에서 준비한 공로패를 직접 주셨고 김혜순 운영위원은 미리 써온 편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이어 김호현 새회장이 21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발제하여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고 총회결의문은 중앙과 대구. 대전 양심수후원회 활동가가 함께 읽어 큰 박수로 채택하는 것으로 총회를 모두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일꾼

명예회장 권오헌

지도위원 김규철(6.15남측위 서울본부공동대표)
김영옥(범민련중앙위원)
노중선(사월혁명회 상임대표)
박중기(추모연대의장)
이강일(나사렛한방병원 원장)
홍근수(평통사상임대표)

감사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소장 동국대교수)
진관스님(불교인권위 상임대표)

회장 김호현(신임)

부회장 김지영(김지영내과 원장, 유임)
모성용(양심수후원회상근, 신임)

운영위원 김귀옥(한성대교수, 유임)
김길자(오감시롱으뜸일꾼, 신임)
김동원(푸른영상대표, 유임)
김명숙(자연어린이집원장, 신임)
김혜순(회원, 유임)
소수영(전운영위원, 유임)
송경용(나눔의 집대표, 성공회신부, 유임)
안병길(광야교회목사, 유임)
임미영(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 유임)
장경욱(민변변호사, 유임)

양심수 후원회 제 21차 정기총회 감사패

– 고성화 선생님 –

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자주통일운동을 하시다 구속되어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비전향 장기수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과 후원,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양심수 후원회의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한결같이 지도. 격려해 주셨고 양심수후원회의 모든 행사에 먼 거리에서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는 정성을 보여 주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 21차 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김재선 회원님–

회원님께서는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한결같이 성원해주셨고 특히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화합과 단합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회원산행을 이끌어 오시는 등 회원사업에 헌신하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최은선 회원님 –

회원님께서는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은 큰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모지희 회원님 –

회원님께서는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랫동안 한결같은 성원을 해주시었고 특히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활동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민족21' 정창현 대표님 –

대표님께서는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월간지 '민족21'을 펴내시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에서 언론의 역할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북녘모습들을 심층 취재하는 등 알찬내용의 민족정론지를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들을 위해 2006년 이후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주시고 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 21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공 로 패

– 권오헌 선생님 –

선생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양심수후원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주 · 민주 · 통일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운동과 체계적인 후원을 위해 창립된 양심수후원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인간실존의 양심과 조국통일의 길 위에서 사회운동의 현장과 양심수가 있는 곳이면 항상 나타나 자리를 지키면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길을 향한 활화산 같은 열정을 뿜어내시며 양심수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금번 퇴임을 기념하여 그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회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이 패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5월 11일 현재 총 82명 ▌구노회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가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2008.8.7		2년	2010/08	안양교 2656	기결
이용대	노동자	건설노조(충북)	단체협약이행촉구	2008.2.15		10월+6월	2009/06	광주교 3340	기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1년+1년6월	2010/03	포항교 3010	기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파업	2009.1.6			수원구 335		미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이젠텍 연대투쟁(07년)	2008.10.12			평택구 203		미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임단협(07년 8월)	2008.11.2			수원구 334		미결
최현기	노동자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1.15		8월	항소중	수원구 320	미결
고희철	노동자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1.15		10월	항소중	수원구 317	미결
이백윤	노동자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대량해고규탄 집회	2009.4.21			서산서		미결
박태수	노동자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대량해고규탄 집회	2009.4.21			서산서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반대(07년) 등	2008.1.7		2년	2010/01	여주교 270	기결
이영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현대미포조선비정규직복직요구	2009.2.9				울산구 35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동조합설립관련	2008.4.4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6	미결
임상민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사정보열람	2008.8.28		10월	상고중	서울구 111	미결
최OO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6.6		10월	항소중	서울구 1561	미결
김영익	노동자	저항의 촛불 기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9.2.27			영등포구 428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0.22		1년6월	2010/02	순천교 1280	기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1.8		1년6월	상고중	충주구 460	미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0.21		8월+10월	2010/04	부산구 6038	기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1.19		1년6월	상고중	충주구 456	미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1.7		6월		김천교 215	기결
이정이	재야	615남측위원회 (부산)	전여옥사건	2009.3.1				영등포구 4301	미결
임OO	재야	개인	용산추모집회 참가	2009.3.10				서울구 67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구 89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구 173	미결
최성훈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구 50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친양고무사건	2008.12.5				서울구 153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4년	2010/10	대구교 45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전수민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1				영등포구976	미결
권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8				서울구 161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3년6월	2010/08	광주교 5051	기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11.17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미결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FTA 문서공개	2008.12.19		9월	항소중	서울구 3750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3년6월	2010/03	대전교 4003	기결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법화(7기)	2008.2.28		3년	항소중	서울구 96	미결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수원구 302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2년	항소중	서울구 76	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2년6월	항소중	서울구 15	미결
김태연	재야	용산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	용산추모집회 주도	2009.3.23				서울구 65	미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추모집회(07년)	2007.12.24		1년6월	2009/06	청주교 1225	기결
김승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추모집회(07년)	2008.10.2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38	미결
인태순	재야	전철연	용산참사 진상규명촉구	2009.3.3				서울구 241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조인환	재야	전철연(성남단대)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구 145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3년+6월+6월	2009/06	안동교 15	기결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구 187	미결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구 171	미결
이충현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8				서울구 29	미결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구 20	미결
김성철	재야	전철연(정금)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구 161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2008.9.27		10월	항소중	서울구 179	미결
허 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 (11/11) 관련	2007.11.21		1년6월	2009/05	장흥교 88	기결
안홍열	학생	대학원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2008.6.23		1년6월	2010/02	청송제2교 1144	기결
최국종	노동자		용산참사관련	2009.2.4				영등포구3458	미결
강봉희	조합원	화물연대울산지부		2009.4.9				울산구34	미결
김철남	조합원	화물연대울산지부		2009.4.9				울산구36	미결
김홍일	노동자		용산참사관련	2009.1.30				서울구90	미결
민철식	대학생		용산참사관련	2009.4.21				서울구173	미결
장순원	노동자		용산참사관련	2009.2.4				영등포구3403	미결
이종우		"광진성동 촛불 ""야옹이""	노동절집회관련	2009.5.2				서울구147	미결
이규재	의장	범민련 남측본부(건설산업연맹)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서울구97	미결
이경원	재야	범남본사무처장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서울구63	미결
최은아	재야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서울구221	미결
윤주형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청주구536	미결
장민경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청주구8	미결
오순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009.5.10				청주구9	미결
하진호		촛불시민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71	미결
전도환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86	미결
박철순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55	미결
조규창		프리랜스기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45	미결
허현무	노동자	민노총정치국장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09	미결
심상덕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41	미결
방병화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77	미결
전준범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15	미결
지승환	노동자	장애인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07	미결
윤석무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83	
원호연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95	
민승기	노동자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49	
김문정	노동자	수원촛불시민		2009.4.30				수원구305	
이상국	노동자	화물연대울산지부		2009.4.24				울산구32	

01

전여옥관련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순덕전민가협 의장을 면회하다. 뜻밖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고초를 겪고 계시는 조순덕어머니는 함께 수감되어 있는 이정이민가협대표를 걱정하는 마음과 두 분의 어머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성원에 꿋꿋하게 잘 있다고 하시다. 이날 면회는 민가협어머니들과 김은 이승미회원과 김호현부회장이 함께 하다.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소식지210호 최종교정작업 후 기획사에 넘김 권오헌 임미영

양심수후원회원이기도 한 정창영감독작품 '경계에 선 인생'이 종로2가 중앙스페이스에서 시사회를 가져 양심수후원회원 등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다. 기록영화이기도 한 영화의 주인공은 ' 노촌 이구영선생님'으로 의병운동을 하신 부친과 백부 등 사대부집안에서 자라시고 뒤늦게 신문학을 하셨으며 사회주의자로 항일운동 그 연속으로 해방공간에서 자주통일운동 전쟁시기 남북으로 오가시고 다시 남쪽에서 국가보안법으로 20년이 넘게 옥고를 치루셨으며 석방뒤에도 변함없는 통일운동가로, 한문학자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신 경계에 서 계신 선생님을 그린작품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들의 연합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한대련은 등록금이 없어서, 취업을 못해서 대학생들이 세상을 등지고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에게 나랏돈을 퍼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대련 대표자들은 청원서를 한나라당 당직자를 통해 전달하다.

강서구 등촌동 서울 88체육관에서 제46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후보로 단독 출마한 임성규위원장을 보궐지도부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임성규 비대위원장과 금속노조 신승철 기아차지부 지회 교육위원은 총 투표인원 533명 중 찬성 450표(반대 52표, 기권 19표, 무효 12표), 총 84.4% 찬성율로 각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다. 부위원장으로는 김경자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456표), 반명자 전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441표), 배강욱 전 화섬연맹 상임지도위원(363표), 정의헌 일반노협 정책위원(478표)도 모두 과반이상 찬성득표로 부위원장에 선출되다. 이날 선출된 5기 보궐지도부는 정부가 4월 비정규직법안 개정, 6월 임시국회 중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언론법 등 노동계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을 우려해 오는 5월 1일 119주년 노동절 투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을 총결집하겠다는 '5.1절 총궐기 투쟁' 방침을 밝히다.

북의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이 RC-135 전략정찰기를 이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 대한 공중정찰을 하고 있다며 "미제가 감히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준비를 간섭하며 함부로 우리측 영공에 간첩비행기를 침범시킨다면" 북한군이 "가차없이 쏘아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 방송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한미군의 대북 공중정찰 활동 상황을 보도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RC-135 전략정찰기의 정탐행위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우리의 과녁 안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하다. 중앙방송은 미국이 "3월22일 조선동해 상공에 전략정찰기를 침입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 행위에 미쳐 날뛰었다"며 "이날 9시경부터 14시20분경까지의 사이에 해외기지로부터 날아든 RC-135 전략정찰기가 함경북도 무수단 앞 해안 상공을 따라 원산 동쪽 해안 상공까지 반복비행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대상물들에 대한 공중감시와 촬영 및 전자정찰 행위에 광분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다.

동아일보사가 창간 8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북의 미사일발사시대응전략 질문에 '대북정책기조를 바꾸고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가 41.4%, '국제사회와 공조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한다'가 33.2%로 나타나다. 이 질문에서 20대 이하로 50.6%, 호남지역 56.9%, 민주당 지지층 60.6%가 대북정책을 바꾸어야한다고 했고 강력대응에는 50대이상 44% ,충청지역 38.3%, 한나라당지지층 44.8%로 나타나다. 그런데 질의에서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했으면 대북제재응답율은 더욱 낮아졌을 것임. 또한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평가에서 부정적이 52.%, 긍정평가 37.8%로, 아프카니스탄 파병에는 '피해야한다' 51%, '한.미동맹강화위해 전향적검토'가 41.7%로 나타나다. 이 조사는 리서치센터에서하다.

서울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B조 5차전에서 1:0으로 남측이 이기다.

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YTN 노조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 결정을 내리다. 한편 YTN노조는 총파업 정리집회를 열고 3일 새벽 5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다. YTN노조는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노종면 지부장 등 기자 6명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하다.

종로구 가회동 음식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주 이종린 명예회장님의 미수(88세) 축하오찬모임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항일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오신 선생님에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함께한사람들이 '위로패'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9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이영 상임의장 권오헌 공동의장 MB악법저지 결의발언 서경순정상임의장 인권침해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경찰청 관계자는 과격 시위 때 이격용 분사기를 이용해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라는 것과 집회나 시위시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집회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를 골자로 한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히다. 이와 함께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의 재정적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늦게 발행된 소식지발송작업이 있었음 문상봉 김영식 박희성선생님 김현수 소수영 권오헌 임미영 함께 수고하다.

이북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평화적 위성 요격에 나서는 자들에게 단호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총참모부는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놓고 가장 못되게 놀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 일본이 "위성을 발사하면 요격할 것을 국책으로까지 선포하였다"면서 일본이 요격행위를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이미 전개된 요격수단 뿐 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다.

총참모부 '중대보도'는 북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은 인공위성이며 이를 발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주장도 거듭 강조하고 "우주공간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이로 인해 북은 국제우주조약에도 가입했고 3월 21일에는 발사예견기간 공중위험구역들과 관련한 전보통지문을 관련국 항공당국에 보낸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다.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늦봄 문익환 목사 방북, 4.2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의 밤'이 열리다. (사)통일맞이 김상근 이사장은 인사말에 이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등 인사말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핵개방3000으로 표방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선전적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었다며 냉전 사고에 따른 이념적인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다. 행사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솟대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진행했고, 행사 말미엔 전체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길 장로, 문성근 씨 등 문 목사의 가족과 김상근 통일맞이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고은 시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명예고문,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각계각층 250여 명이 참석하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550여 개 시민 ·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 예산을 수정해 반값 등록금 이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도 함께하여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등을 속히 시행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데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미사일발사시험(4.4~8)까지 콩 의약품 이유식 등 시급한 필수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지원불가)반출을 연기해 줄 것을 민간단체들에게 요청하다. 이같은 방침으로 이날 오전 인천부두에서 환송식을 마치고 3일 북으로 보낼 예정이었던 6.15남측위 농민본부의 못자라용 비닐 등 38호(1억2천만원상당)은 선적하지 못하다.

이북의 군 총참모부는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북한) 혁명무력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먼저 "일본이 분별을 잃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가차없이 이미 전개된 요격수단 뿐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이 이미 국제조약들에 가입한데 이어, 지난 3.21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발사예상시간과 위험지역까지 통보하였음에도 "유독 일본만이 우리의 위성발사 공중위험구역 사전통지까지 시비하면서 평화적인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의 발사를 '적대행위'로 낙인하고 그 무슨 변이라도 난 것처럼 법석 고아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일본침략군, 남조선 괴뢰군 해군 유도탄구축함 '곤고', '죠까이'호와 '세종대왕'호가 조선 동해상에 전개되었"으며 "초보적인 이성마저 잃은 일본반동들은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면 '요격할 것을 국책으로까지 선포하였다"고, 일본 내각의 '북 미사일 파괴명령을 비난했다고 하다.

03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유한우판사) 심리로 이른바 전여옥의원사건 첫 재판이 열리다. 방청석은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찼고 법정 밖에서는 보수우익세력들이 소란을 피우다. 최병모 이광철 위대영 변호인이 입회하다. 이정이 조순덕전의장이 입정하고 판사의 인정심문에 이어 검찰은 증거자료제시에서 이정이 조순덕 의장등의 폭행 혐의를 내세웠으나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하다. 다만 전여옥의원의 일방적 진술과 특정인의 소견 등을 내다 조순덕 전의장은 검찰조사 때 담당계장이 유도질문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

으나 공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고 검찰에 항의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전여옥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 법률'의 재심항목 등 개악안을 낸 것에대한 이정이 전회장의 항의였으며 그것은 우발적 순간적 충돌로 눈을후비고 폭행했다는 일방적주장과 8주진단의 진정성이 다음 공판까지 가려질 것임. 공판이 끝나고 50여명의 방청인들은 정문 밖에서 방청보고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를 갖고두 의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부장판사)심리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결심공판이 열리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반국가단체인 이북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라며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징역9년 자격정지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 징역8년 자격정지8년을 문경환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상임연구원에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구형하다. 변호인들과 통일일꾼들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들며 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등 조작된 사실 왜곡 그리고통일의 상대인 이북에 대한 학문연구 등을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반포혐의로 전혀 승복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다(후원회소식210호보심)

후원회소식 210호를 회원996부 해외 17부 발송하다. 또 양심수 84분에게 '민족21'과 '소식지' '영치금'을 발송하다.

제부도 펜션 패밀리에서 양심수후원회 운영회원 사무국활동가 워크샵을 가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제21차 총회를 맞아 새 인선구성과 사무국활동강화 양심수후원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 회원확보 회원상호간 소통문제 후원회 방향 등 세부적 논의가 있었음. 김동원 소수영 안병길 김호현모성용 김혜순 임미영 함께 하다.

04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시민사회 노동.정당 단체들은'4.4 국제반전공동행동'(공동행동)을 열어 아프카니스탄으로의 재파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반전 평화단체들이 주축이 된 250여 참가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한미동맹폐기를 촉구하는 발언 있었음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결의문낭독이 있었음

이북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통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위성은 곧 발사되게 된다 고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인용보도하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들이 '4.4 국제반전공동행동' 반전집회를 열고 한미당국에 '지금은 전쟁과 점령이 끝날 때이고 군비가 아닌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 라며 전쟁책동중단을 촉구하다. 이날 집회는 나토60년에 반대해 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반전시위, 미국 평화정의 연합이 월스트리트에서 개최하는 전국반전시위와 공동으로 열리는 국제반전공동행동으로 지난 1월 브라질 사회포럼에서 결의된 '자본주의반대와 전쟁반대국제행동주간(3.28~4.4)에 맞추어 열리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파병 등 확전을 규탄하고 미국의 비위에 맞춰 이명박정부의 파병정책 PSI참여방침 등을 규탄하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김영희 진보신당부대표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공동대표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오현리 주민들이 함께 하다. 또한 미국의 평화정의 연합 영국의 전쟁저지연합 그리스 전쟁저지연합 팔레스타인에 온 국제연대 등이 함께 하다. 평화시위(행진)은 경찰저지로 포기하다.

05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공위성 로켓인 '광명성2호'를 쏘아 올리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하다. 11시 40분께,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도 "북한 무수단리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로켓 1발이 발사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발사시각은 11시 30분 15초라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시 30분께 로켓이 발사됐고 11시 37분께 1차 추진체가 일본 아키타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로켓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쪽으로 날아갔다. 일본 정부는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없으며 요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1시 57분,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 로켓이 우주 진입에 성공했다"고 확인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열도 동쪽 2,100km까지 2단계 추진체를 추적하다가 놓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정부 당국자도 "로켓이 나아간 궤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발사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 오후 3시30분께에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2초만인 11시29분 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공식확인하다. 통신에 따르면,"'은하-2호'는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면서 "'광명성2호'는 40.6° 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

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거리 1,426㎞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주기는 104분 12초"라고 확인했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률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운반로켓 '은하-2호'에 대해서는 "3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 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명박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라 했으며 국방부는 전군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체코방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기술개발관 확산을 동북아지역 및 국제 평화와 인권에 위협되고 있으며 1718호를 위반'이라 했으며 일본은 인공위성발사 35분 만에 유엔안보회의긴급소집을 요구하는 등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다.

재일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광명성2호 궤도진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자체의 힘만으로 만든 로케트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는 쏘련에서 57년 10월, 미국이 58년 1월, 프랑스가 65년 11월, 일본이 70년 2월, 중국이 71년 4월, 영국이 71년 10월, 인도는 80년 7월, 이스라엘이 88년 9월에 조선이 1998년 8월에 이란이 2007년 2월에 각각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서 조선은 열 번째 나라가 아니라 아홉 번째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하다.

정부당국자는 북미방공사령부(NRAD)가 북 인공위성 궤적 추적결과 북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로켓을 발사 1단계는 동해 쪽에 650킬로미터 지점에, 2단계는 3200킬로미터 지점에서 2단계와 탑재물(인공위성)은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발표를 인용보도하면서 길지 않는 장래에 PSI에 정식참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위성여부 실패여부 관계없이 로켓발사시도 노력자체가 문제라며 인공위성발사 직후 유명환 외통부장관은 미.일.중.러 외교장관과 전화협의를 하는 등 주권국가의 체면을 구기면서 외세의 예속성을 드러내다

06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11층에서 국가인권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지만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다. 안경환 위원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직제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하다. 감축 인원 44명은 국가인권위의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진행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다.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는 '한.미.일 당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대북 제재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어디에도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한미.일 당국이 유엔결의 1718호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억지"라고 규탄하다.

조순덕전민가협의장의 연행 구속 25일 만에 보석석방되다. 영등포구치소 앞에서는 일찌감치 석방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 민가협어머니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양심수후원회원들이 와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 7시가 넘어서야 수척하지만 얼굴에 웃음가득 띄운 채 걸어나와 환영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축하의 말에 안기다. 구치소앞에서 간단한 출소환영회를 마치고 가까운 음식점으로 모여 다시 한 번 석방의 소회를 풀다. 김익 모성용 임미영 권오헌 함께 하다.

이북의 인공위성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가 현지시간 오후 3시 간동안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갖고 각기 입장을 발표했으나 미.영.프.일 등은 탄도미사일개발금지에 위반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이 인공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탐사로 봐야 한다며 추가제재결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이날자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4월 5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로 찾으시고 시험통신위성<광명성2호> 발사과정을 관찰하시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와 운반로켓<은하2호>는 설계로부터 제작조립 발사장과 발사 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국산화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단계단(다단계)운반로켓과 인공위성은 100%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되어 단 한 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라며 강대국의 문을 여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기술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을 거듭 찬사하시었다'고 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07

이북의 <로동신문>은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위대한 역사적 사변'에서 성공했다고 전하다. 신문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 발사는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민족적 경사"라면서 "이번 발사로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위성발사국, 위성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높이 떨치게 되었다"고 자축하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 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는 것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 발사는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의의 깊은 사변으로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변으로 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평화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통된 지향"이라면서 "이번에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개발하여 발사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알렸다.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가협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공동으로 '2008년 한반기 감청통계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권력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2008년 전화번호 아이디 등 대상감청건수가 9000여건을 돌파했고 그 가운데 98.5%는 국정원에서 진행했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2008년 하반4기 감청통계로 본 도.감청실태와 통비법의 문제점 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국정원(전신포함)의 정치관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사례와 국정원법 통비법 개악 등을 통한 국정원 권한강화 책동 규탄발언, 이영민가협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북의 <로동신문>은 '하늘에 먹칠해보려는 것과 같은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남정부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3.2~27 제네바)에서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다시 국회에서 북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하물며 남조선을 세상에서 손꼽히는 민주의 불모지 인권의 폐허지대로 만들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 왕국들이 도대체 무슨 체면에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하며 나발인가'라며 이명박정부의 인권유린 사례로 ㅇ실천연대 등 통일진보단체 성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보안법위반혐의 기소 ㅇ검경의 계속된 촛불탄압 ㅇ용산참사 외에 최근 국가인권위 조직축소강행 등 예를 들다. 신문은이어 '이명박일당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못되게놀다가는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집권 전기간 남북대화장에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못한 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김영삼역도의 수치스러운 전철을밟게 될 것'이라며 역적패동은 인권소동이 가져올 것이란수치스러운 파멸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영등포 민주노총1층 회의실에서 무건리훈련장반대대책위 집행위에 참석하다. 김종일대책위위원장의 활동동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는 4.9트랙터순례 4.12평화 대행진또 국제평화행사 등 향후일정을 논의하고 주민대책위의 상황보고가 있었음

통일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인천지역 노동자 대표단의 방북 승인을 '유보'키로 결정하여 반북대결정책을 여지없이 드러내다. 그러나 전교조 박근상 통일위원장은 "끝까지 방북 승인을 요청했고, 통일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정부와 협의 하에 방북을 철회한 적이 없고 사실상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작년 8월 직항로를 통한 대규모 방북도 '유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불허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겉에서는 대화창구를 열어놓겠다면서 민간교류마저 막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다.

08

통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전교조)와 인천지역 노동자 대표단의 방북승인 신청 '유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허한데 대해 민주노총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한국노총 인천지역 노동자대표들이 오늘(8일) 방북하고자 했던 목적은 말 그대로 남북노동자의 교류연대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대화조차 봉쇄하겠다는 것은 남북의 협력적 관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뜻을 짓밟는 독재정권의 전횡"이라고 규탄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비핵.개방.3000'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다.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한국진보연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일본제국주의 부활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일본의 대북적대정책과 군사대국주의 부활음모규탄발언 황선 실천연대 집행간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는 '용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 사과, 특검 도입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제시하다. 용산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다. 또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용산 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하고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다. 용산 범대위는 이상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인 4월 21일 자정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다.

6일 보석출소하신 조순덕어머니 환영회가 낙성대 만남을 집에서 열리다. 장기수선생님들과 민가협어머니들 범민련 활동가들이 함께 하여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그동안맘 고생을 하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하여 전여옥의원의 부도덕함을 술안주삼아 술과 음식을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다. 출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주재 이북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7일(현지시간) 로켓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조선의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다. 박차석대표는 '유엔안보리가 어떤 방식이든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이를 주권침해로 여길 것이고 다음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고 하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7일회의(3회)는 입장차이로 취소되었다고 언론들이 전하다.

가수 신해철씨가 북의 인공위성발사를 지지하는 뜻을 밝혀 온라인상에서 찬반논란이 거세지다. 신해철씨는 이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경축>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케트 (굳이 ICBM이라고 하지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 고 밝히다이어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민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 고하다.

이명박정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정부요구안을 제시하다 o대통령사과 o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감사제도도입 o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o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대책수립과 재개발 관련 법 체도전면개선 o전국철거민연합과 용산범대위에 대한공안탄압 즉각중단 할 것 등을 촉구하다.

09

북의 <로동신문>는 사설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 깊은 회의' 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는 공화국정권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위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의의 깊은 회의로 된다" 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들었다. 사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공화국(북한)을 자주의 강국으로 온 누리에 더욱 빛을 뿌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높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알렸다.

이북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조선중앙TV> 여성 아나운서는 예고대로 12시 '중대방송'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실현에서 위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하다.

중국 위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는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지적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자회담이 지난 6년간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화해란 새로운 국면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 신중함을 견지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50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이영 상임의장 강진구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부인의 사례발표 권오헌 공동의장의 북인공위성발사와 관련 PSI 전면참여정부방침규탄발언등이 있었음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49평화재단 주최로 '인혁당 민주열사 34주기 추모제' 가 열리다 문규현신부의 인사말 이부영 백기완씨의 추도사가 있었음 이날 추모제에는 고인들의 뜻을 옳게 반영하지 못한아쉬움이 많았음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8일 인공위성 '광명성2호' 의 성과적 발사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고 언론들이 <민주조선>9일자와 <조선중앙통신> 8일 소식을 빌어 언론들이 보도하다 기사에서는 "드넓은 광장은 10년 전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 를 발사한데 이어 또다시 단 한 번의 발사로 '광명성2호' 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킨 위성보유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 높은 자주적 인민의 긍지로 격정을 금치 못하며 모여온 10만여명의 각 계층 수도시민들로 차 넘쳤다" 고 알렸다. 신문은 보고자와 연설자들이 "우리나라를 인공지구위성 제작국, 인공지구위성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 세

운 역사적 장거는 주체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 우리 당 영도의 현명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막아 나선 원수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린 선군조선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이라고 말하였다"고 알렸다. 신문은 보고자와 연설자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승리의 첫 축포마냥 위성을 쏘아올린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정신을 따라 배워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전례 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군중대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어버이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과감히 벌려나갈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제12기 제1차회의를 개최해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보도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하다. <조선중앙TV> '중대방송'을 통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며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올렸다"고 에스비에스가 인용 보도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 생존시인 1993년 오늘과 같은 날인 4월 9일에 국방위원장으로 처음 추대된 이후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린 98년 9월 5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으며, 11기 1차 회의가 열린 2003년 9월 3일 다시 추대된 바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임이다. 이번 제 121기 제1차 회의에서는 전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했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일본 문부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심의회를 열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지유시판 역사교과서 1종 검정결과를 확정하고 별도 공식발표없이 회의종료 후 '실질적으로 대외공고하다' -바로 한국(조선)사를 왜곡하고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것임 이 교과서는 o임나일본부설을 기술하고 '이씨조선'으로 표기하는 등 조선사 주체성부정 격하 o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조선반도위협을 강조하거나 식민지지배의 목적이 조선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o러일전쟁을 피압박민족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위안부강제동원을 빼는 등 침략전쟁미화를 담고 있음

일본 도쿄 재일본 YMCA에서 지난 5일(사)통일맞이 와 재일늦봄 통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씨알의 김 등이 후원하는 '문익환목사 방북 42공동선명20주년 남북화해 평화를 위한 일본포럼'이 열리다. 기념식은 1부 추도예배 2부 강연 3부 교류회 등으로 진행되다.

경기도 파주시 오현리 삼거리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파주지역 트랙터 순례'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다. 경찰은 오현리 주민들이 준비한 파주지역 트랙터 순례를 막기 위해 새벽부터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의 트랙터를 수십 대의 차량이 마을 곳곳에 배치하여 순례 자체를 원천 봉쇄 하고 또 순례에 참가하지 않는 트랙터까지도 모두 막아 주민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주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천봉쇄의 이유를 들기도 하다.

박석진 '무건리 공대위' 공동상황실장과 마을 주민들은 사보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몸에 '오현리를 지켜내자', '고향에서 살고 싶다', '고향땅을 지켜내자'는 글귀를 빨간 색으로 새긴채 시위하다. 오현리 주민들은 도보행진으로 평화순례를 한 후 파주시청 앞에서 약식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하다.

10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80여명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알리는 농성단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다. 학생대표 삭발식을 진행하다. 그러나 경찰은 삭발식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삭발식에 함께 했던 학생 등 49명을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유한수판사)심리로 이른바 전여옥폭행사건 이정이 조순덕회장 2차공판이 진행되다 검사와 재판부변호인사이 증거목록 등 점검하다 이어 검찰측 증인으로 전여옥의원보좌관 김인수씨와 박우석씨 정지영(국회)씨 등이 나와 증언했으나 어느 누구도 이정이조순덕의장이 전여옥의원의 눈을 후비고 가슴과 얼굴들을 가격한 일이 없고 다만 이정이 의장이 전의원을 밀었던 사실과 조순덕의장이 뒤엉킨 상태에서 전의원의 머리를 쥐는 모습만 증언하다. 사실상 전여옥의원의 8주 진단이란게 조작으로 드러나다.

김명호교수석방대책위는 이른바 석궁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명호교수를 장소이동접견하다. 김명호교수는 이 나라는 사법부의 개혁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바깥에 있는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불법의 근거지인 법원에 대한 투쟁에 집중하기를 요구하다. 그 밖에 대책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에서 투쟁역량을 모아 잘싸우고 있다고 전하다. 구노회 이광렬사무국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변외성회원 후원회 임미영 사무국장 함께 하다.

이북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이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한 '광명성2호'가 저고도,경사궤도 위성이라고 주

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 신문은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고도 위성은 높이가 수백m로부터 수천m이고 중고도 위성은 높이가 약 5천~2만m, 고고도 위성은 2만m 이상되는 위성"이라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 호'는 저고도 위성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위성궤도 경사각이란 지구 적도면과 위성 궤도면 사 이의 각을 말한다"며 "경사궤도 위성은 궤도경사각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위성"인데 "광명성 2호는 경사궤도 위성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용도에 따라 실용위성과 과학위성, 군용위성으로 구분하고 "실용위성은 응용분야가 넓은 위성으로 여기에는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지구자원탐사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있다"며 "광명성2호는 앞으로 실용통신 위성발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된 시험통신위성"이라고 덧붙였다.

11 ----------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 대련 등 70여 명의 대학생. 각계 인사들이 10일에 있었던 대학생강제연행관련 강제연행 대학생 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역고 연행 대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한성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의 규탄발언과 박해선 서울지역 대학생연합의장(숙대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옴시롱감시롱기행팀이 제 54차 정기기행으로 '신비의 대가야 고령 그리고 합천해인사의 문화유산' 주제로 경북고령과 해인사일대 기행을 11~12에 걸쳐 다녀오다(후원회소식 210호보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전하다. 후주석은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다시 추대된 것은 조선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지지와 높은 신뢰의 표시이며 중.조(북)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며 "중국측은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과 중.조 '친선의 해'를 계기로 중.조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다.

미아 오거리 음식점에서 석달윤선생님 간첩조작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간첩조작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셨던 함주명 선생님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과 민가협간사들이 함께하여 선생님을 축하해드렸습니다 모성용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12 ----------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대책위가 주최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평화대행진이 열리다. 주민대책위 서경자총무의 사회로 주병준 주민대책위위원장의 여는 말 윤한탁 경기실천연대대표 김종일 무건리대책위위원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인천공대 율동패의 율동으로 기운을 북돋우다. 주민대책위 2인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사전행사를 끝내고 오현리에서 훈련장입구까지 이르는 2킬로미터를 참가자들이 평화행진하다. 훈련장 입구에서 정리 집회 후 평화대행진 행사를 마치다 소수영 모성용 김성환 임미영 참가하다.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지인 <스페이스 플라이트나우>는 11일자 인터넷게시판에서 '북한로켓이 초기생각보다 멀리 날아갔다'라는 제목기사에서 '로켓이 우주궤도진입에 실패해 대기권으로 추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고 밝히다. 또한 발사체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마일(700~800킬로미터)더 멀리 나아갔고 전보다 훨씬 개량된 저정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다. 이어 '북한이 로켓이 발사대에서 3058킬로미터 날아갔다는 미.일의 앞선 발표와는 달리 2930마일(3846킬로미터)까지 날아갔고 2단계 추진체는 북한이 선박과 항공기들에 대해 벗어날 것을 경고했던 위험지역 내에 떨어졌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다.

13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참여라는 차원에서 PSI 전면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북한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해서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런 조치를 봐가면서 조만간 참여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다. 문 대변인은 정부가 PSI 전면참가와 관련해 미국 등과 협의를 한 적은 있다고도 하다.
이정이 6.15남측위 부산본부의장에 대한 양심수후원회 면회를 후원회회원이자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인 김성환님이 다녀오다. 이정이 의장은 김성환위원장에게 안에서 굽힘없이 잘 지내고 있음을 전하고 바깥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오다.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네스트레넨코(Andrei Nesterenko) 대변인은 5일자 논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월 5일 오전 인공지구위성(artificial Earth satellite)을 저궤도(low-Earth orbit)에 보냈다(sent into)"고 확인했다 '고 러시아 외무부홈페이지를 인용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14 ----------

광화문미 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등 9개 단체 공동으로 '115차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부에 대해 PSI 전면 참여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다. 이경원 범남본사무처장 유영재 평통사미군문제팀장 주병준 무건리주민대책위 위원장 등 결의발언과 민주노총 철도노조 최정욱 정치통일국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4일 새벽(뉴욕시간 13일 오후), '4.5 북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Claude Heller) 유엔 주재 멕시코 대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난한다(condemn)"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하다. 성명은 또 이북이 또한 결의 1718호 8항상의의무이행과 추가적인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회원국들에 1718호 의무이행을 촉구하다. 결의 1718호 8항상 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24일까지 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하지 않으면안보리가 이달30일까지 조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하다. 결의 1718호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동결 및 관련 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이 사문화됐던 조항을 한.미.일에 의해 재생시킨 것임. 성명은 이어 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9.19공동성명이행에 모든 참가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다. 이 의장성명은 결의와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한.미.일이 당초 결의를 추진하다 중.러의 반대에 막히자 이 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을 타협한 부당한 조치였음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 이날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규탄하다. 성명은 "다시는 (6자회담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이며 불능화중이던 영변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며 자체의 경수로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재일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 4월 영화상영이 광화문 우체국6층 북한자료센터에서 있었음 김교영 김영식, 김선분, 박정숙, 변숙현, 송세영 선생님 박중기 김달수 황현승 이순영선생님과 한찬욱회원 함께 했습니다.

15 ----------

-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중단촉구발언과 황선 실천연대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오늘 영변 핵시설에 있는 IAEA 검증요원들에게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히다. 마크 비드리케어(Marc Vidricaire) IAEA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청했으며 이에따라 IAEA 검증요원들이 더 이상 (핵)시설에 접근할수 없게됐다"며 "검증요원들은 가능한 빨리 북한을 떠날 것을 요청받았다"면서 "북한은 IAEA에게 모든 시설을 재가동하고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히다.

- 재일 <조선신보> 에 따르면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김일성주석 탄신 9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렸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 침략세력들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끝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불패의 기상과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을 총 폭팔시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김위원장은 이어 '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현대조선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참답게 개척해 나가는 혁명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고 그 의의를 부여하다. 이날 중앙보고대회에는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 우당 기관장들 당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교육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 혁명열사유가족들 노력혁신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대표자들 동포인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고 하다.

16 ----------

- 종로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51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임기란 전상임의장 권오헌 공동의장 PSI전면참여규탄 및 실천연대 탄압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21차총회 3차 준비위원회가 열리다. 20차사업 및 결산 평가 21차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회계감사에 이어 차기회기 인선과 모범회원(감사패대상) 확정 등 총회 준비 점검이 있었음 지도위원 이신 노중선 김규철 박중기 김영옥선생님 권오헌 김호현 안병길 모성용 김혜순 소수영 임미영 참석하였음

-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이 집단으로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군법무관 7명이 10월경 불온서적 지정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낸바 있음 이에 국방부는 군법무관 7명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여 지난달 17일 파면(2명), 감봉(1명), 근신(2명), 근책(징계유예 2명) 등 중징계한 바 있음 현재 국방부 내부 절차로 '항고심사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음.

17 ----------

-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민주노총 등 30

여 단체 공동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다. 박석분 평통사회원팀장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 등 촉구발언과 이규재 범남본의장이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마치고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과 정우수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공동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을 열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말 강진구위원장 부인 박선혜씨의 가족발언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은 규탄발언과 이영 민가협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계사에서 수배생활을 했던 박원석.한용진 공동상황실장을 비롯 김동규 조직국장, 권혜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가 이날 보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다. 구치소 앞에서는 소속단체 회원들이 환영식을 갖고 옥고를 위로하다. 모성용운영위원이 함께하다.

18

국가정보원은 일본 도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4.19 49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손형근의장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여 짐검사와 강제연행을 시도하다. 이에 손형근의장 등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며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고 있었음 이날 인천공항에는 일본각지에서 한통련 성원 20여명이 도착하였음. 손형근의장은 지난 3월 1일 제12차 대의원선거에서 김정부 전의장의 뒤를 이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년 이시우평화사진작가 공판에서 한통련 간부로는 처음으로 남쪽 법정에 출석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항변하였음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대답)'을 통해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여' 등을 통하여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포고, 선전포고로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대변인은 '4.5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제재 소동'을 비난하면서 "우리(북한)에 대한 대결과 전쟁이 정식으로 포고된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6자회담 합의에 구속됨이 없이 핵억제력을 포함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4.14 외무성 성명'을 거듭 확인했다.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계속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매어달릴수록 차례질 것은 쓰디쓴 수치와 파멸 뿐"이라고도 했다.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공동집회' 를 개최하다.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사회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PSI를 참가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PSI 전면참여' 라고 쓰인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비롯해, 노란색 손 피켓을 외교통상부 벽에 붙이면서 항의의 뜻을 표현하다.

북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에 따르면 이날 '<조선중앙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여' 등을 통하여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포고, 선전포고로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기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우리 혁명 무력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 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이 세상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항시적인 격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계속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매어달릴수록 차례질 것은 쓰디쓴 수치와 파멸 뿐" 이라고도 하다.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사월혁명회 4월혁명 49돌을 맞아 소속회원과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4월 혁명정신으로 역사반동의 시대를 끝장내자는 선언문을 발표하다. 무건리 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 주병준)를 제20회 사월혁명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식을 갖다 주병준위원장의 수상소감 추천했던 평통사 배종렬상임대표의 축사를 하다. 이날 연대사를 하기로 했던 재일 한통련 손형근의장 등은 공항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17대 한국대한총학생회연합(한총련)투쟁본부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1부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는 강정구교수의 '한반도 평화와 오바마정부' 라는 주제로 특별강의가 있었음

19

강북구 수유리 국립 4.19민주공원묘소에서 사월혁명회와 한국진보연대 공동으로 '4.19혁명 49주년 합동 참배식' 을 갖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의 선언문낭독 이규재 범남본의장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 일본에서 온 재일 한통련 손형근의장 등 기념사가 있었음 이어 분향과 민주열사가 잠들어 있은 묘소참배를 하다.

6.15한마음통일산악회의 북한산 등반의날 –마치 4.19 혁명

49돌이어서 진달래능선 등반과 4.19국립묘지 합동참배 산상강연등이 있었음(산행기보심)

20

서울중앙지법 5단독(판사 유영현)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혐의(전기통신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상황을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500여 단체는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촛불정신 계승,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 MB정권심판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다. '사회연대 노동절 행사로 치르자'는 민주노총의 임성규 위원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구성하고 조직위는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의 기조를 '민생.민주의 전망과 희망을 연대의 힘으로 열어내자'로 정로 정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예비노동자, 해고자, 휴직자 등 '노동자 연대'와 대규모 '노동자– 학생 연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반값 등록금 실현 △한.미FTA 비준중단 △민주노조운동 탄압 중단 △용산문제 즉각 해결 △MB악법 폐기 △PSI 참여중단 및 남북대화 추진 등 노동.학생.농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현안을 모아10대 요구안을 발표하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리다. 법원은 "실천연대가 강령과 규약만으로 북한에 동조, 찬양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반국가단체를 지지하고 구성원들의 사상 성향성 등을 통해 볼 때 적어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져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다. 재판부는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과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서 회합.통신,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선전활동 혐의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다. 문경환.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핵심 연구원으로서의 활동 기간이 길지 않고 집필.연구 등에 중점을 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다. 곽동기 상임연구위원과 문경환 정책위원장은 집행예로 석방되다.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삼성반도체 노동자 집단 백혈병 산재인정 촉구를 위한 4.21 피해자증언대회'가 열리다.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씨의 경과보고에 이어 피해당사자인 2007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와 고 황민웅씨의 부인 정애정씨 당사자인 김옥이씨 박지연씨 한혜경씨의 피해증언 발표가 있었음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삼성측의 농간으로 승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정적 심적 육체적인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이들은 현재산재 최종 결정이전에 삼성재벌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산재승인을 위해 싸우자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인시위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농성 결정한 상태이다.

북측의 개성공단관련 협의 제의에 따라 남측의 김정택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대표단이 개성공단에 도착 연락관 접촉을 7번이나 거치면서 오후 8시35분부터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사무실에서 대표단 접촉이 이루어지다. 북측은 ①개성공업지구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②개성공단 사업의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다. 이는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더 이상 특혜조치를 존속시킬 사유가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으로 평가되다. 특혜조치 재검토사항으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권계약을 다시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기로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내년부터 지불하도록 할 것 북측노동자들의 노임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한다'고 하다.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진보연대 민가협 미디어행동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반대 집중행동주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결의하다.

22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으며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대북선제공격의사를 나타내다. 개념계획 5029 2005년 미군측이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으나, 주권 침해 등의 이유로 노무현정부가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음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는 개념계획 5029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북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를 비롯해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음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 4당 공동위원회(야4당공대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산특검법)'과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용산특별법)'을 발의하다 용산특검법은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발의로 64명이 공동발의했고 용산특별법은 김희철 민주당의원 등 88명이 발의하다.

23 ----------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PSI 전면 참여에 앞장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파면하고 외교안보진영을 전면 쇄신할 것"을 촉구하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규탄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측에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를 앞장서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기만을 일삼아, 정부 내에서조차 혼선과 반론을 불러일으킨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반대내용의 752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린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악시도 규탄발언 강성순 천주교인권위활동가등 참가자 모두 색안경을 쓰고 국정원이 감시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강신원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통신비밀법 개정내용규탄발언이 있었음 이날 집회에서는 지나 21일 진행유예로 출소한 실천연대의 문경환 곽동기씨가 나와 출소인사와 국정원조사 사례를 발표하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들은 새로 임명된 보상심의위원회 김성기 위원장을 면담하고 민주화운동신청사건 심의의 객관성공평성 문제 보상법개정문제 백서발간문제 민주공원조성사업문제 등 현안문제를 질의하고 대답을 듣는 토의시간을 갖다 (강민조이사장 권오헌고문 외)

삼성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인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문 앞 노상농성장에 지지방문하다. 임미영

24 ----------

이북의 박의훈외무상은 방북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양측은 회담에서 우리사이의 관계발전문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환영연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12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된 것을 축하였다'고 하다. 그는 이날 평양에 도착 양국친선의 상징인' 해방탑에 헌화하고 김일성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탁월한 국가활동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드린다. 주석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견결한 옹호자로서 러시아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계실 것' 이라는글을 남기다. 한편 러시아이타르타스와 인페르팍스 통신은 라부로프 장관이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을 마치고 북의 핵문제와 관련 '신속한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에 대한 제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의무이행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지난 5일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이북의 조선광업 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 용봉총회사 등을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안보리 결정 1718호상의 미사일관련 대북수출통제리스트를 조정하는데 합의하고 이합의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한편 전체 회원들에게 공식통보할 것'이라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히다.

박덕훈 유엔주재 이북대표부 차석대사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제재합의에 대해 '안보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다. 박덕훈대사는 또한 '우주이용문제를 놓고 안보리가 제재논의를 하는 자체가 유엔헌장과 우주관련 협약들에 대한 완전한 도전이자 철저한 위반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하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며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민가협회원들과 양심수후원회원들과 사회단체외원 출소장기수들이 함께 한가운데 '제24차 민가협정기총회'를 열다. 조순덕 구학협총무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임기란 전상임의장(운영위원)의 여는 말과 권오헌 공동의장의 오신 분 소개가 있었고 박정기 전유가협회장 임방규 통일광장대표 김종일 평통사사무처장 등 격려말씀과 축사 등이 있었고 이어 서경순 운영위원(전상임의장)의 24차 총회준비위경과보고 이영 상임의장의 사업 및 결산보고와 인선 감사보고 (감사)등이 있었음 이어 권오헌 공동의장 등 감사패증정이 있었고 다시 감사 선출에서는 를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상임의장 공동의장 운영위원 사무국일꾼 양심수후원회일꾼 등 모두 나와 새일꾼 등 인사가 있었고 이영상임의장 인사말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총회결의문을 박영옥회원이 낭독하여 큰 박수로 채택하고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합창하며 총회를 모두 마치다.

이북<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해당기관은 미국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1박2일 방북은 마치고 서울에 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8시 한.러 외무장관회담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별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다. 라브로프장관은 오늘은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며 관련국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다. 또한 일본을 지적한 '핵을 보유한다'는 등 '군사적 대응과 구실을 갖고 자신들의 의무를 피하면 안된다며 2.13 10.3합의에서 명시된 중유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일을 겨냥해 직설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다

25 ----------

명동향린교회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창립대회가 열리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일제 피해자단체를 비롯하여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촛불시민연대 광복회 독립유공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50단체가 참가하고 이이화 추진위상임대표의 인사말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재승 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 축사가 있었고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패해자인 길원옥할머니 등 피해사례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다. 최길숙 밀양독립운동연구회 사무국장과 이석태 진실과정의 공동대표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다. 선언문에서는 2010년을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평화공존의 새날을 여는 첫해를 만들 것을 선언하다.

26 ----------

출소장기수이시며 범민련고문이신 '안희숙선생님 팔순과 부인 신선옥여사의 고희기념축하연'이 봉천동 동진부페에서 열리다. 권오헌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여 축하해드리다(기사보심)

27 ----------

충무로 진실화해위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부정부패위원 선임 및 코드인사 강행 규탄, 올바른과거청산 기자회견을 열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법조비리 구속전력자인 이재교 교수와 대통령추천으로 극우편향 역사교과서 집필자 강규형교수를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데 대한 규탄기자회견이 있음. 권오헌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오원록 한국전쟁시기 피해자 유족회 상인대표이 규탄발언, 정해열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 이정이 대표님의 면회하는 월요일 김호현 회장과 모성용 부회장 임미영사무국장 권오헌 명예회장이 영등포구치소로 면회를 갔으나 가족들 면회가 잡혀있어 다음 기회로 미루었고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원일교통 해고자로 노조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된 유정희님을 면회하다. 후원회의 면회를 매우 생경스러워하여 구속양심수들을 챙기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또 이정이 대표님께는 권오헌회장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넣어드리다.
용산참사현장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주최로 '용산참사 100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이번 주내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각종 행사를 이어나갈 것을 발표하다. 28일엔 청와대앞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 100일되는 29일은 참사현장에서 100일 추모행사, 30일엔 책임자 처벌을 위한 릴레이 행진 등으로 이어지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2년 6개월 만인 4월 23일 만기출소하신 박종기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출소 인사하러 왔습니다. 출소 후 몸이 많이 나빠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몸이 나아지면 감옥생활에서 얻은 학습과 더욱 단단해진 신념으로 통일운동에 전념하시고 앞으로도 양심수후원회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군요.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출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8 ----------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로 열린 '2009 희망만들기 촛불 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가 열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수단체회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조직적으로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며 토론회 참석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소란으로 20여 분간 중단됐고, 이들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일부가 장외로 빠져나간 뒤에야 재개되다. 조대엽 고려대사회학과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제를 통해 촛불은 잠깐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타오를 것이고, 신자유주의를 대중운동으로 극복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5명의 유가족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을 맞아 추모행사가 열리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배은심 유가협 대표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규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과 학살주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10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한다고 말하다. 추모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마련한 화분을 하나씩 들고 미니 화분대에 놓아 열사들과 유족들에게 꽃을 바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다. 이어 곧바로 농성에 들어가 김근태 민주당 고문,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다. 권오헌 소수영 모성용 참가하고 이어진 밤샘농성에 임미영 함께하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용산 범대위주최로 '대통령 직접사과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을 열다. 홍석만 대변인

사회로 이규재 범 남본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과 이해학목사님의 규탄발언 유가족들의 심경발표, 사회연대 조희주 전교조교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유족들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떠나자 경찰의 제지로 그 자리에 앉아 농성을 계속하다. 오후 5시 문정현 신부님의 권고로 농성을 풀고 용산참사 현장으로 돌아오다.

검찰은 이날 새벽<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조능희, 송일준 전피디와 김은희, 이연희작가를 체포하다. 이에 방송4사 구성작가 협의회와 방송인 총연합회 회원들이 중앙지검 앞에서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보복수사중단과 제작진 즉각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용산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가 주최하고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떠안는 군고위급회담중단 *주한 미군 C41이전비용 협상 전면공개 *미사일방어망(MD) 예산증액기도 국방부규탄 *군축으로 복지실현 비정규직문제해결등을 촉구하다.

서울대 아크로 폴리스광장에서 김세진, 이재호열사 23주기 추모제 열리다. 서울대 추모제 준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추모제에는 열사 부모님과 유가협, 민가협, 범민련등 사회단체성원과 서울지역 각 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다. (관련기사 보심)

29

이북은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내어 유엔 안보리가 북의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것을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추가적인 자위적인 조치를 할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하다. 또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우라늄농축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것'이라고 하다.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다섯 곳 모두에서 완패하고 경기시흥 시장선거에서도 패배하다. 인천. 부평에선 민주당 홍영표후보가 울산북구에서는 조승수 진보신당후보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단일화로 승리하다. 전주의 완산.덕진선거구에서는 민주당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건, 정동영후보에 패하고 경북 경주에서도 성수석 무소속후보가 한나라당후보를 이기다.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원불교.기독교.천주교 등 4대 종단이 주최하는 '용산참사 100일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다. 이날 범국민추모제는 4대 종단에서 각각 추도 의식을 준비해 시종일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사회로 경찰은 문정현신부는 용산 범대위 공동대표 배은심 어머니 등의 용산참사 의혹규명과 살인경찰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다. 문정현신부, 방인성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최고위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족인 권명숙씨의 대국민 호소문 낭독과 공연으로 살풀이등 몸짓공연과 민중가수 박준의 열사들에게 바치는 노래공연이 있었음. 1,000여 시민들은 유족들의 영정에 헌화를 마치고,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노래를 부르다.

30

경찰의 폭력행패가 더욱 격심해 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은 아예 원천봉쇄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강제연행이 이어지다. 용산참사 100일을 넘긴 이날 참사현장에서는 '추모와 심판의 의미를 담은 행동을 각 거점별로 벌이기로하다. 거점별로 죄를 묻고 해당 심판세트를 전달할 예정으로 ' 서울 도심지역 자전거 행진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을 열고 –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대문 경찰청, 광화문에 위치한 건설사 본사, 청와대등으로 자전거 25대와 차량 2대를 이용하려 했으나 경찰은 ' 다중이 동일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집회 '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한다' 며 원천봉쇄하다. 일부활동가들은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저승사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하고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경찰 80여명이 이들을 미신고 집회라며 40분 이상 고착시켰고 용산역 부근에서는 경제위기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준) 소속 대학생 200여명이 삼각지역으로부터 참사현장방문을 위해 인도로 오다가 경찰들에 의해 폭력으로 대학생 16명과 전철연 소속회원(여성)1명이 강제연행되다. 용산범대위는 긴급성명을 내어 '오늘 벌어진 경찰의 반인권적 불법. 폭력행위를 국가 인권위에 긴급 진정했다' 며 경찰의 폭력행패를 규탄하다.

용산 현장에서는 철거민 1명과 대학생 16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되다. 범대위 측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께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준)' 소속 대학생200여 명이 삼각지역 부근에서 행진을 통해 용산 현장 방문을 시도했다. 용산 현장에서는 대학생 16명과 전철연 여성 회원1명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연행을 말리던 전철연 여성 회원 1명도 같이 연행됐고, 호송차량 창문으로 빠져 나오려던 회원 엉덩이를 경찰이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서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전하다. 범대위는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 벌어진 경찰의 반인권적, 불법적, 폭력적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용산경찰서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다.